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어질고 지혜로운 왕의 상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절실한 것으로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 글을 꼽았다. 그래서 550년전 배움이 부족한 백성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글을 제정 반포했고, 비로소 우리는 자랑스럽고 편리하며 소중한 우리 글을 갖게 됐다. 글은 말과 짝지어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말과 글을 통해 인류는 문명을 빛나게 발전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각을 이루신 후 부처님은 침묵과 설법의 두 갈래 길에서 흔연히 후자를 택하셨다. 이처럼 글이 있어 더욱 유익해진 말. 그러나 한글날을 맞아,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도 돌아볼 일이다. 〈편집자 주〉

착한 말 닦아 익히면

정정되지 않거나 뜻이 없거나 이익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언제나 법다운 말 그대로 쓰면 이는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잡아함 십선경〉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이어야 하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道)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남에대해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범망경〉

사랑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땅히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맹화(猛火)는 능히 일세(一世)를 태우나 구업은 무수세(無數世)를 태운다. 〈보은경〉

온갖 맛있는 음식 중에서 진실한 말이 으뜸이다. 〈발역 잡아함경〉

사람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드르르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없다. 〈법구경〉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숫타니파타〉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관련기사 2 · 3면

한글날 특집 불경 · 의식 한글화 2 · 3면
'불교와 도시문화' 학술회의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강원지역 사찰

공비침투로 '불사차질'

법왕사 천불이운·월정사 보살계등 대책고심
락가사 '7천만 민족화합 기원법회' 축소될 듯

출입통제 참배객 발길 '뚝'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여파로 강원지역 사찰의 참배객 발길이 끊겨 사찰마다 계획중인 불사 및 각종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18일 무장공비가 타고온 잠수함이 발견된 강릉 락가사(주지 청우)는 오는 23일 남북7천만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보살계 및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할 계획이었으나 동참자가 적어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비소탕작전이 계속되고있는 칠성산 소재 법왕사(주지 지혜)도 26일 천불전을 새로 마련하고 천불이 운식을 봉행할 예정이지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있어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16일 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 보살계, 24일 명주 보현사(주지 도원) 누각 상량식 및 만등불사, 25일 양양 동해사(주지 의룡) 감로법비 만등불사 등의 행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대책미련에 고심하고 있다.

락가사 주지 청우스님은 "검문받는 돌편함 때문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갑자기 끊겨 영동지역 사찰들이 무인도가 된 것 같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신행활동이 중단되지 않는 불자들의 신심이 아쉽다"고 말했다.

월정사 총무 원행스님은 "공비소탕작전으로 통행금지와 일부 등산로가 통제되는 불편은 있지만 신행활동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사찰마다 마련된 불사에 불자들의 계속적인 동참과 신행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년중 최대의 참배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지역은 사찰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의 경우 예년같으면 하루 3~4천여명이 관음도량을 찾았으나 요즈음은 하루 1~2백명이 고작으로 경내가 한적하다. 더구나 국내 최대의 기도처로 알려진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은 입산이 통제되어 기도객과 등산객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속초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은 "사찰도 사찰이지만 주민들의 경제가 심각하다"며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참배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월정사가 지난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횡계지역 군·경에게 1백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는등 각 사찰마다 공비소탕에 여념이 없는 군·경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비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윤리선언 채택 통일광복민족호의(공동의장 월주스님)소속 불교 유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등 5백여명의 각 종교인사들은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덕성 회복과 윤리제고운동을 공자로하는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식개혁으로 지역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혼란스런 사회분위기를 일신해 오는 2002년까지 민족의 숙원인 통일기반을 조성키로 결의했다.

경부고속철 경주외곽 통과 검토

건교부 11월말 공청회 거쳐 노선 확정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외곽지역을 통과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검토하고 있는 노선은 문체부가 제안한 건천~화천노선보다 경주외곽으로 10Km 이상 벗어난 산내면을 통과하는 6개 노선이며, 역사 위치는 경주 울산 포항을 잇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자금까지 거론돼온 기존화정노선(형산강 노선), 우회노선, 제 3노선(문체부안)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6개 노선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문화재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11월말경 공청회를 거쳐 최종노선을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재관리국 廳 승격 추진

문화체육부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관리국을 차관급의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문체공위 국감에서 박종웅의원(신한국당)이 "문화재관리의 기능강화를 위해 문화재관리국의 청 승격개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김영수문체부장관이 "적극 검토중이다"고 답해 밝혀졌다.

이날 김장관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의 해'인 97년중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논의는 문화재관리행정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 3년여전부터 꾸준 거론돼 왔다.

한편 현재 문화재관리국 규모는 금년예산 9백8억원으로 일반전문직 2백52명 기능직 3백51명이 지정문화재 6천여건과 20만여점으로 추산되는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10월 12일까지 150명 선착순 접수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사회를 따라 잡는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 · 광주 각 30명)
· 교육은 5회(서울 3회, 부산 · 광주 각1회), 1회당 30명씩 배정.
◇모집기간
· 96년 10월12일까지 선착순
◇교육일정 및 장소
· 96년 10월17~12월 17일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서울 :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입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부산 :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교육내용
· windows 기본
· 통신사용 방법 (E-Mail 중심)
· 인터넷 사용법 활용 (특정과제 수행능력 함양)
◇교육비 무료
■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 협찬: 삼보컴퓨터

본사 '서울시청 공공DB 사업' 낙찰

본사는 서울시가 실시한 '공공DB 민원안내시스템 기능확대' 개발 용역 공개입찰에서 지난 1일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이로써 본사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자체서버를 구축하는 과업을 맡아 개발하게 됐습니다.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 · 조환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튿날 선종 본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일시 : 1996년10월26일(토, 음력 9월 보름)~27일(일) (1박 2일)
◇일정
· 26일 : 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철야정진도 가능)
· 27일 : 수덕사-방장 원담스님 친견 (주지 법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집결지
· 서울 : 10월 26일 오후4시 조계사앞(관광버스 대기)
· 부산 : 10월26일 오후1시 부산시민회관앞(관광버스 대기)
◇참가비 : 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관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34 HALLA 1962-1996 창립 34周年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世上을 만들겠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
漢拏는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環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라는 자연환경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라의 모든 사업장에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綠色經營'을 펼치고 있습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해운 · 한라자원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 · 마르코폴로 호텔 · 배달학원

사 설

불경언해정신 되새기자

우리글 한글이 창제 반포된지 벌써 550주년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표음문자를 만든 목적과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겉으로 나타나있는 목적은 그 당시의 서민대중을 비롯한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지(御旨)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교를 서민대중들에게 쉽게 보급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우선 훈민정음의 어지부분의 글자수가 108자이고, 이를 해설한 〈월인석보〉 제1권이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불교의 상징수인 108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세조실록〉에서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기록에 있는 불교행적을 통해 세종과 세조가 얼마나 불교적 신앙심이 깊었는 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글 창제 뒤에 진행된 각종 언해사업 중에서 불교경전이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당시 조선의 건국이념인 '억불숭유' 정신과 서로 맞지않아서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불교적 신심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글창제의 불교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지금 불교계의 역경사업에 대한 문제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역경사업의 물적, 인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대종단인 조계종단은 세가지 사업목표로 포교, 도제양성과 함께 역경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경사업은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료, 제작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역경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등도 변변치 못하다. 지금까지 역경전문가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재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한글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역경사들이 아주 드물어서 새세대를 위한 번역불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불교에 대한 이해와 한문해독 그리고 인접학문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춘 역경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포교와 역경은 현실적인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문서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팔만대장경 등의 정확한 번역을 통한 한글화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경불사가 포교의 밑거름이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사회의 현실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포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성을 바로잡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한글경전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의 교화는 포교의 첫걸음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하는 주춧돌이다. 번역된 한글경전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대중성과 보편성이 생명이다.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경사업만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자.

셋째, 역경사업과 함께 각종 불교의식의 한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한글화된 통일법요집을 만들고 각종 불교의식에서 쉬운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도 대중이 뜻도 모르는 한문경전으로 의식과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열린마당 — 한글법요의식

인구의 86%가 한글세대다.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대각사 사천왕사 등 몇몇 사찰과 도심포교당이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경전과 예불문을 한글로 봉독하면서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종단 차원의 통일된 한글 의식집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다. 훈민정음 반포 550주년을 맞아 불교의식의 한글화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종단 초월 한글법요의식 통일 절실

봉선사에는 대웅전의 현판과 법당의 주련이 모두 한글로 되어있다. 사찰에 들리는 외래 방문객들이나 사찰 순례자들도 이러한 한글 편액이나 한글 주련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특이하다고 말한다.

사실은 당연한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땅의 불교가 160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민족정서에 맞아 떨어질런지는 몰라도 이 시대에는 구시대의 전유물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금과옥조가 혼탁한 이 시대의 대중에게 전달되는 그 출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묵암 〈봉선사 포교국장〉

지금까지의 종단의 개혁이 외형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라면, 불교의 의식의 한글화는 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한글화된 법요집은 대중들에게 법회때 일체감을 줄 것이며, 한마음으로 기도의 일체감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각 사찰에서 나름대로 한글화된 의식을 만들어 법회시 사용은 하고 있으나 사찰마다 모두 다르고 사용문구나 단어의 어휘 선택도 차이가 많다.

때문에 종단에서는 한글법요집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한글법요의식집 제작을 위한 공동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식에 대한 통일된 법요집을 만들기를 학수고대한다.

"한문법요집 이해 어렵고 주문외듯"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난 항상 불교의식도 한글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한문일색으로 되어있는 법요집을 대하다보면 늘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 집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경전말씀을 주문외듯이 달달 외기만 하다보니 왠지 믿음과 공부가 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친구가 다니는 절인 부산 망미동의 태고종 사찰 백룡사법회에 동참한 적이 있다. 백룡사는 한글로 된 〈반야심경〉과 〈천수경〉 등 경전뿐만 아니라 방생의식 천도의식 관음의식 화혼의식 등 일상의례도 한글로 봉

장화숙 〈부산 영주사 신도〉

독을 하고 있었다. 법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녀노소할 것없이 입을 모아 한글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인상깊었다.

복잡한 것보다 쉬운 것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불교의식의 한글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글불교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반 불자들과 스님들이 기도 불공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한글법요집〉내지 〈한글불교의식집〉의 발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역할은 종단 및 학계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앞장서야 하리라고 본다. 또 불자 및 스님 모두 한글불교의식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의식한글화 현황

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 가동
방대한 의식 현실맞게 정리 필요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엄·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 부처님과 불자들 사이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지적이 불교의식의 한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까지 나온 한글법요집만 해도 광덕스님의 〈불광법회요전〉, 현능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식집〉, 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 전북사암승가회의 〈우리말 불교의식집〉, 불교의식교육원의 〈불교의식집〉, 무불스님의 〈한글법요집〉, 이동성법사의 〈한글법회요전〉, 한정섭법사의 〈생활불교의식〉, 김호성법사의 〈한글불교의식집〉, 조계종포교원의 〈청소년 법요집〉 등 10여종이 넘는다. 대부분 불보살의 명호와 다라니, 제목 및 소제목, 고유명사는 그대로 살리는 등 기본적인 한글화 원칙은 일치하지만 한글예불문과 〈한글반야심경〉 〈한글천수경〉 등은 각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단 차원의 '통일된 한글 불교의식집'은 아직 없는 상태. 불교진흥원의 〈통일법요집〉이 나와 있지만 조계종 포교원은 독자적으로 〈통일법요집〉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청소년법요집〉을 발간한 바 있는 포교원은 지난해 통일법요집 기획팀과 편찬위원회를 가동, 올해안에 시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현장 점검과 보완작업을 마쳐 최종적인 〈통일법요집〉을 편찬·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통일법요집〉이 불교의식의 완전한 한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문이 가지는 함축성과 간결성, 운율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글화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의미와 운율을 고려하면서 번역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의식의 획일화가 목적이 아니라 방대한 의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원칙있는 준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재가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쉽고도 간편한 의식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

의식한글화 모범사찰

대각사
용성스님 '대각교의식집' 발간후 꾸준히 추진
한글경전 독송하며 모든 의식 우리말로 진행

불교의식의 한글화 실천을 위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이 있다.

서울 대각사(주지 도문)는 매월 지장법회를 비롯 각 법회마다 우리말로 풀이된 한글경전을 법회의식에 사용한다.

이를위해 대각사는 지난 8월 회심곡, 왕생가, 관음시식 등이 수록된 〈한글지장경예식집〉을 펴냈고 지난 9월에는 추석을 맞아 〈한글추석차례예식집〉도 발간했다. 이밖에도 관련 세미나와 발표회, 주련 풀어쓰기, 한글가로쓰기 등의 한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처럼 대각사는 그동안 한문으로 일관됐던 경전과 의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풀어 신도들의 각종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신도들 또한 한문경전을 독송하며 신행할 때보다 한글경전을 독송하니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처님 법의 수승함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대각사가 다른 사찰에 비해 한글의식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용성스님의 원력에서부터 비롯됐다.

용성스님은 1927년 반야심경, 예불, 타종법, 삼귀의, 천수경, 축원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풀어 엮은 〈대각교의식집〉을 발간하면서부터 한글불교의식운동을 펴 나갔다. 〈근〉



◇ 대각사는 매월 음력 18일 지장법회때 〈한글지장경예식집〉으로 봉행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손안에 있으니…

목어

어느 회사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옆 동료가 먹고있는 짜장면을 나눠먹으며 정겨워 했다. 이 모습을 본 내방객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짜장면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상하조직속에 매일 긴 시간을 함께 일하다 보면 동료는 식구가 되고, 직장은 제2의 가정이 된다. 그래서 직장은 가정처럼 소중하다.

그런데 70.5%의 직장인이 현 직장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다.

현재 자기 사업을 구상중이며, 능력만 갖춰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사직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래불안이 50%로 가장 큰 이유다. 다음이 직무불만, 임금불만, 승진·승급, 여가시간, 상사와의 갈등 등이 퇴직을 고려하는 크고작은 사유다.

직장에서 일의 성취감을 통해 보람을 만끽하는 것은 직장인의 행복이다. 나아가 그 성취감은 회사와 기업 그리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직장 구성원의 70%가 퇴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그 일터에 무슨 활기가 돌 것이며 신바람이 날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셀러리맨들에게서만 그 답을 찾을 일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평생일터'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신명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아 골고루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그룹총수의 경영철학이다.

불자인 이 총수의 경영철학은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장자는 집사를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힘에 알맞게 부리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병이 나면 쉬게 함이다." 〈선생자경〉은 주인, 즉 경영자의 도리를 이렇게 설하면서 집사(직장인)의 도리도 일러주고 있다.

"행위를 착하게 하고 재물 출납을 자세히 하라. 모든 일을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궁핍해도 떠나지 않으며 밖에서 장자의 뛰어난 지혜를 칭송하라. 이렇게 하면 善法이 쇠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일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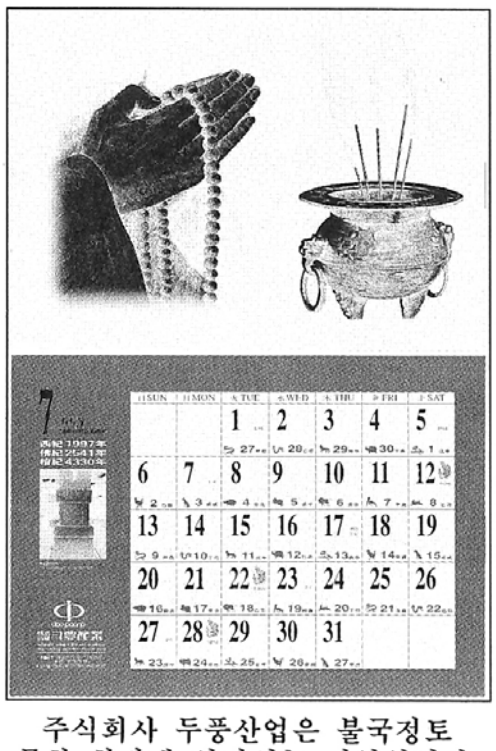
도리에 맞는 모임만

도리에 맞지 않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바른 가르침의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법집 운송경〉

협찬 과천 보광사
대중 일동
TEL.(02)502-2262

달력 ■ ■ ■ ■ ■ ■
"올해는 좀 특이하고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스님!

사실 이 달력은 (주) 두풍산업의 기업홍보용으로 제작한 작품인데 여러스님께 검수를 부탁드렸더니 감짝놀라시며, 참!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 하시면서 불자들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걸수있는 달력이니 포교용으로 아주용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식회사 두풍산업은 불국정토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 ■ ■ ■ ■ ■ 달력
■ ■ 이라기보다는
■ ■ ■ 작품입니다

숨겨둔 작품 걸리지 않는 달력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벽에 걸려 있을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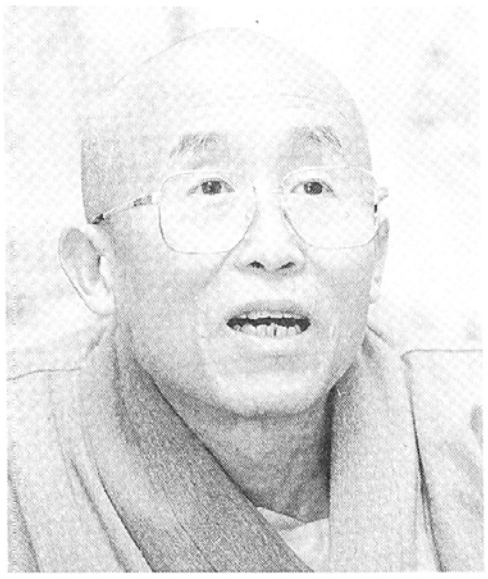
연말쯤이면 스님께서 항상 보내주신 달력, 고맙게 받기는 하지만 막상 집안 분위기에 맞추어 걸자니 좀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았다는 보살님, 첫째는 스님이 좋아하셔야 하겠지만…?

영업안내 : 불 교 건 축 : 사찰, 고건축, 한옥, 닷집, 문짝, 마루, 내장전문
용 품 : 대불, 옥불, 천불, 동불 조각·미술 : 탱화, 개금, 탁자, 영단, 단청, 연, 주련, 법상, 석불, 범종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주)두풍산업
대표전화 (02)439-3900
F A X (02)439-3933

한글반포 550주년—한문불경 극복방법 없나 역경원장 월운스님에게 듣는다

"종단 과감히 관습 탈피 하길"



강원교육부터 변혁…한글·한문 이원화

한문법요의식 불교대중화 정체요인

—불경 한글화 의식 한글화는 불교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습니다. 한글세대인 새싹포교를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직분 연령 성별의 차를 고려한 불교교육과 이에 맞는 한글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 종도가 합의된 한글통일법요집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종단적 공감대가 덜 성숙된 것 같습니다. 종단의 지도자들이 협력해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유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 불교를 외래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지요.

▲소승불교권인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은 팔리어로 의식을 하고 있고 티벳, 일본과 영국등 서양에서는 상당부분 자기네 나라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은 원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가자들이 한글세대인데도 강원교육은 여전히 한문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에 변혁이 있어야 할 듯 싶은데 그대로 답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첫째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직껏 강원등 승려전문기관에서 운용할만한 교재가 없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장차 장경의 전체 흐름을 연구할 교단의 주역이란 점을 고려해 역시 한문경전을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럽 한문실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한문교재를 쓰는 것은 결국 무엇이 무엇인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허점이 없지않기에 강원교육을 이원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초보자들에게는 번역된 경전으로 이론을 습득하는 기본반을 이수케 하고 경전을 전공할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반에서 한문경전을 습득케 하는 방법입니다.

—법회등에서 한문으로 하는 의식은 마치 주문처럼 들려 불교대중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식에는 주문같은 요소가 없어서도 안됩니다. 의식의 구조상 탄백(歎白) 부분 즉 의식을 올리는 취지고백, 의식부문마다의 개요, 마지막으로 의식을 봉행한 뒤의 축원 등은 이른바 사항설명이므로 우리말로 하고, 가지(加持)부분 즉 부처님께 직접 고하거나 부처님의 호념을 청하는 대목은 그대로 두어야 존엄성이 산다고 봅니다.

—이같은 문제는 1600년 한국불교역사의 정체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요.

▲지난 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고려대장경 총 161,451면중 59.9%가 번역됐고 금년말까지는 70.8%가 끝납니다. 내년말까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국고와 동국대의 보조, 자체 판매수익이 주요 재원입니다. 사실 번역고료가 너무 저조해 수준높은 분들에게 원고를 청탁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지 더 지나가면 더 어렵다'는 주위의 권유로 역경연찬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역경후원회를 만들어 만인동참으로 자금 압박을 벗어나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화에만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널리 보급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가깝게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경전 읽는 맛'을 들여야 하는데 일단 한번 맛을 들이면 법문듣는 것보다 훨씬들 좋아하는걸 여러 번 봤습니다. 사찰마다 교양대를 만들어 경전 독송을 권하고 체계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분위기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경전이 방대한 만큼 일일이 집에다 비치하기 곤란하니 사찰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비치해 활용케하는 것도 좋고 종단차원에서 독송대회를 정기적으로 여는것도 좋은 방편이 되리라 봅니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사랑 국민의식 전환 필요"

'97 문화유산의 해' 이렇게 준비하자 각계의견

내년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문화체육부는 지난 9월 19일 이를 이끌어갈 조직위와 집행위를 구성 발표,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재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교문화재가 곧 민족문화재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 등 불교문화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한병삼('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국민들이 문화재의 참의미를 널리 인식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이벤트사업보다는 문화재에 애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인사가 중요한만큼 그 주변환경도 보존돼야 한다는 폭넓은 인식의 전환이 되도록 사업을 펼쳐야 한다. 문화재와 그 역사사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문화유산의 해'를 불교계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을 주축으로 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보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보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디딤돌을 다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비지정으로 남아있는 성보문화재 지정범위 확대 및 이를 보호할 제도장치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홍윤식(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불교역사와 문화를 소상히 알릴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우리는 문화재를 물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정신적 가치파악을 소홀히 해 왔다. 불교는 곧 우리 역사다. 따라서 성보는 우리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인 셈이다. 성보를 통해 그 정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문화재 외형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성보의 정신적 가치를 널리 알려 한국 문화재 전체를 불교가 지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문명대(동대 불교미술사연구소장)=전시회 등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불교의 문화·학문적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동국대박물관을 비롯해 각 사찰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성보전시회와 학술회의 개최는 불교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성보위원회를 조직해 성보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케 하고 캠페인·교육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사업과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박명규(문화재관리국 기획관)=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등 문화재 전반에 걸친 각종 사안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역마다 고유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4월 화순 운주사를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운주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출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교문화재 가꾸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은 눈여겨볼만 하다.

성보실태 파악미흡…관리·보존 제도화 절실

캠페인·행사통해 불교문화 우수성 홍보

한명우 기자

시론

'애사심' 흔들려도 좋은가

우리 경제는 요즈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16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는 올해 목표치인 4.5%을 넘어서 5%에 육박하며 올해 GDP성장률도 6.9%내지 7%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어두운 경제적 현실이 아니다. 도리어 그보다도 그에 대처하려는 재계와 정부의 태도이다. 재계는 불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총액동결, 인원감축 등의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후유증 많은 감원처방

물론 기업의 불황대책으로 임금동결이니 인원감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사장시켜 미구에 '스카우트' 경쟁으로 노동시장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가 '선성장 후정리해고'로 바뀜에서 오는 배신감은 기업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애사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병 태
〈한양대 교수·상법학〉

물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있다. 그리고 고비용의 내용으로 고물가·고금리·고지가 및 고규제와 나란히 고임금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불경기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고임금구조의 개선이 불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맨먼저 '임금총액동결과 인원감축'을 내세우는데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어려우면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의 일치단결과 그 단결을 통한 총력의 집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회와 구성원의 희생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기업의 경영위기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나 공동결정체를 비롯한 노사협조제도가 등장한 것도 그 나라 경제와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기업이 어려울 경우 노사가 서로 맞대고 현실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할 일을 구상하여 다같이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서로 억울함이 없이 나누어 가지는 수단이 노사협의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조보다는 근로자의 '임금동결과 해고'를 내세우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불황은 이미 몇차례 있었고, 또 예상된 바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개방가속화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선진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돌리고 기술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으며, 다른 한편 후진국들이 한국의 수출상품과 비슷한 종류와 품질의 각종 수출상품을 한국제품보다 싸게 수출함으로써 한국상품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재벌구조에 있다.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에서 정부의 모든 특혜를 받아 얻은 기업이익을 재무구조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불황대비나 경쟁력 강화에는 제대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먼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벌구조의 탈피를 위해 주력업종이외의 업종정리, 부실부분의 과감한 정리와 절대비를 비롯한 비용절감, 비업무용재산처분, 공동부품의 개발, 기업간 합병 등 선진국의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이 우리 경제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 이를 실현하는데 노사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

근로자에게 경영내용을 솔직하게 개진하여 그들의 참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업의 장래와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희망을 위해 노사 다같이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없을지라도,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룩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예정하거나 회사주식의 배당을 약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대기업의 임금인상의 억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호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구상하는 노사개혁을 반대할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대통령이 언급한 바, 민주화와 세계화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속의 불교 92

내 손이 최상·최고의 약손이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바란다. 그러나 평생동안 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한 생에 몇차례 쯤은 질병에 시달린다. 때로는 생사의 고비를 겪기도 한다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일생의 상당부분을 병석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다. 개중엔 병고를 이기지 못해 요절하거나 '시한부'선고를 받기도 한다.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통털어 말한다면 현대인 치고 아마도 병자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질병은 어쩌면 우리들 생의 한 부분 또는 삶의 당연한 내용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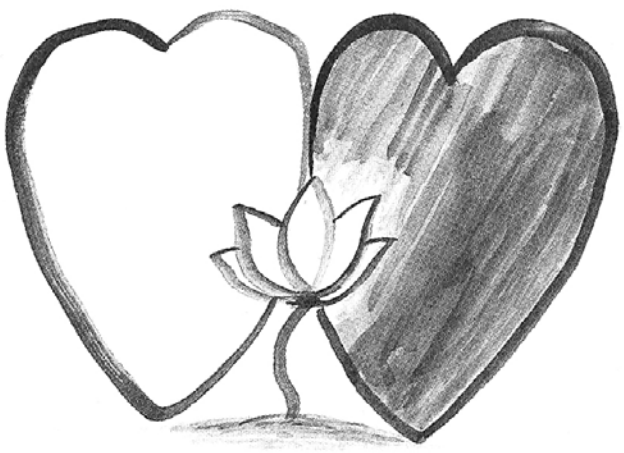
현대의학은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열세에 놓여있다. 어떤 종류의 병은 의학의 발달에 힘 입어 완전 퇴치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종류의 묵은 병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은 완벽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 육신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병원은 여전히 못 믿을 정비업소와 같다. 그런가하면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일지라도 한동안 속수무책이 되고만다.

질병은 우리들의 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단지 예고없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일 뿐인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모를뿐 이미 예고되고 준비된 것인가? 혹은 그것은 재수보기로 우연히 맞닥드린 것인가, 운명인가? 또는 조물주의 장난끼인가 시험인가?

흔히들 질병은 섭생·생활태도·환경 그리고 유전적 형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청객도 아니고 재수보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는 얘기이다.

더 엄밀히 따지면 자신들이 자유의지로, 또는 무심코 뿌려놓은 원인의 씨앗들이 자라서 어느날 질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인과법인 셈이다.

질병이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라면 모든 병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다.



내 탓이요, 씨앗 - 열매의 관계라면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 있다. 의사의 손이 아닌 내 손이 내 병엔 최상·최고의 약손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계가 고장 났을때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내가 만들어 놓고서 나는 속수무책이니 남이 와서 고쳐주기를 바란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는가. 어리석음일 뿐이다.

내가 만든 것은 내것이다. 내것이므로 나와 다르지 않다. 누가 가져다 준 것도, 밖에서 찾아든 것도 아니라면 나의 일부분이요 그대로 나이다. 고로 싫으면 내 손으로 다시 만들고 고쳐 놓으면 된다. 쫓아 내려하기 이전에 바꾸면 된다.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씨앗이 된 그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질병은 그렇게 마음바꾸기를 요구하는 기회의 신호이다.

그것은 응징이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참 나의 목소리요 몸짓이다. 고로 개심(改心)은 회복의 첫 걸음이 된다.

불법엔 구구절절 치병의 길이 있다.

협찬 : 한용수·한결

법회 안내

정수사(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자성신광법회 매주 목 오후6시

안정사(02)292-2439

인등법회 매월 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0431)273-6946

정기법회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4시30분
심근회법회 첫째주 화 오후2시
심일회법회 둘째 화 오전10시30분
심원회법회 셋째 화 오전10시30분
심선회법회 넷째 화 오전10시30분

천불암(0417)64-3223

룬스님초청법회
매월 3일(음)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인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직지사(0547)436-3174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관음법회 19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18일(음)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 운전기사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1시

연호사(036)85-068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보광사(0348)942-7700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철야기도 매월 셋째주 토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선덕사(062)263-4660

가족법회 첫째주 일 오전10시30분
기도법회 매월 셋째 월 오후7시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화 오후1시30분
청년법회 매주 목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불광사 창립 22돌 법회

광덕 불광사 주지는 오는 13일 오전10시30분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및 부모은중송 재공연을 봉행한다.

한·일·대만 종교인회의 참석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스님은 일본 홋가이도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희생자위령재와 한국 일본 대만 종교인회의에 참석키 위해 11일 출국한다.

무의탁 노인 초청 위안잔치

각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스님은 지난 9월23일 마포경로식당에서 무의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70여명을 초청, 위안잔치를 봉행했다.

서울시 미술 문화상 수상

송영방 동국대교수(미술학과)가 제45회 서울시 문화상 미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7백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우리는선우 5돌 기념법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이사장(서강대교수)은 오는 12일 오후3시30분 동국대 정각원에서 우리는선우 창립 5주년 및 사단법인 설립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해군 대령으로 진급

강남석 육해공군 군승단장(해군본부 군종감실 군종단장)은 지난 9월23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운주사 주제 사진전 가져

김동준씨는 지난 4~8일 부산 불원아트갤러리에서 '정제된 시간 운주사편'을 주제로 사진전을 가졌다. 5회 개인전인 이번 사진전에서 김씨는 전남 화순 운주사의 탑과 부도등을 담은 50여 작품을 선보였다.

佛 예술문학훈장 받아



홍라희 호암미술관장(불이회 회장)은 지난 2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프랑스의 1급 예술문학훈장인 꼬망되르훈장을 받았다. 이번 수령은 홍관장이 샤갈전 프랑스설치작가 8인전 등을 한국에 유치한 것과 현지 한국문학포럼, 한인예술가지원사업에 노력해 온 공로가 프랑스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교내법당에 법사실 마련

이학송 광동여고 교법사는 최근 교내 법당안에 법사실을 별도로 마련, 원활한 교육활동을 펴고 있다. (0351)876-6295

"한밤 청취자 마음의 벗 돼야죠"

BBS 명상음악 진행 **박용기** 제작위원



"명상음악 프로그램이 불자들의 심성교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7일 첫방송을 시작한 불교방송 신설프로 '명상음악(PD 김학주)'의 진행자로 나선 불교방송 박용기 방송제작위원의 말이다.

심야시간대인 새벽 0시30분부터 30분간 명상음악을 통해 청취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줄 박위원은 불교방송 프로그램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기 위원은 "유럽, 미국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뉴에이지풍의 음악과 한국적 특히 불교적 정서를 담은 명상음악을 소개해 청취자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데뷰소감을 피력했다.

이은자 기자

경찰종합학교에 법당개원 심 재 열 법사



전국 경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경찰종합학교에 불자들의 신행과 결집을 도울법당이 오는 18일 개원된다. 이번 법당 개원은 심재열법사(경찰종합학교 보안학과장, 경승)의 5개월여에 걸친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북부경찰서의 경승실을 조성하기도 했던 심법사는 "지난 4월 서울 북부경찰서에서 이곳으로 부임해 와보니 경목실만 있을뿐 경승실이 없었습니다. 불교신자가 300여명에 이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불자들의 신행과 일반 경찰들이 신심을 다질 수 있는 법당건립에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법사는 우선 불자들의 결속을 위해 지난 5월20일 교관을 중심으로 불교회 발기인대회를 갖기도 했다. 또 법당개원 후 불자의경과 간부 후보생 2백여명을 불교회로 섭외, 경찰종합학교내 불교신행활동을 강화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 효란스님을 은사로 서울 수유리 서원사에서 출가해 태고종에 적을 두고 있는 심법사는 경찰종합학교 경승실의 경승으로서 "경찰가족들의 신행진작과 불자공동체형성에 구심체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300여 불자 신행중심체 기대"

도필선 기자

대구 염불선원 수산스님 입적



5일 시립화장장서 다비식

조계종 원로의원 만오당(晩悟堂) 수산(壽山)스님(대구 염불선원장)이 지난 1일 오전6시 법랍 45세 세수 91세를 일기로 열반했다.

스님은 1951년 경남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5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경북 달성군 남지장사 주지, 대구 염불선원장 등을 역임했다.

1973년 자운스님과 더불어 염불만일회를 결성한 스님은 염불당을 설립하여 수행정진과 중생교화에 전념해왔다. 또한 재소자포교를 위해 4만권의 책을 교도소에 기증했으며 그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약 40만권의 책자를 무상배포하기도 했다. 30년이상 아미타불 정근을 계속해온 스님의 저서 및 번역서로 〈정토지남〉〈아미타경〉〈염불요문〉 등 다수가 있으며 음반으로 '권왕가'와 '극락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스님의 영결식은 5일 염불선원에서, 다비식은 벌레등을 죽이는 살생을 피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대구시립화장장에서 봉행됐다.

성주암 도광스님 입적



불교정화 당시 선학원 서기로 활약했던 민도광스님(대구 성주암 주지)이 지난 9월30일 세수 83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정화당시 상황을 일지형식으로 200자 원고지 약 1천5백매 분량에 기록 해왔고, 이를 책으로 펴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

모집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급식제공 및 설거지를 도와줄 경로식당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02)852-0525

간병인교육생=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제2차 주부 및 준고령자 취업대비 간병인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강료는 전액무료이며, 대상은 남자 50~65세, 여자 30~60세. (02)363-7884

강좌 문화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교양교육을 위해 생활도예, 홈패션, 양재, 꽃꽂이, 가야금교실 등의 문화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042)633-1141

전통다도 및 예절교육=바라밀포교원(원장 효종스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무료로 전통다도와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051)633-6412

차문화 기초과정=한국의 다성 초의선사의 차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초의선원(주지 용운) 초의문화재단은 12월20일까지 3개월과정의 '차문화 기초특강반'을 개설했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02)732-2317

불교와 한방의학=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스님)은 9일 오후1시30분 김석근박사(한의사)를 초빙, '불교와 한방의학'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02)511-2026

순례 어린이 유적답사=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20일 제18차 어린이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답사지는 백양사, 장성 석불입상, 필암서원등이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 (062)263-4660

행사 청담성사 성상제막식=청담학원(이사장 동광스님)은 오는 11일 오전9시 청담종합고 광명정사에서 청담종합고 개교 20주년 및 청담중 개교 27주년을 맞아 불교교육연합회지정 제26회 교학발표회와 청담대종사 성상제막식을 거행한다. (0333)691-8095

중앙승가대 97입시요강 발표

중앙승가대학(학장 지하스님)은 97학년도 신·편입학 시험요강을 발표, 오는 12월9일부터 원서교부를 한다.

이번 입시요강은 종단에서 인정하는 대교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면접시험'만으로 우대선발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은 예년대로 시행하되 '불교교리 및 상식' 필기고사 성적비중을 높여 시행하는 것이 특징.

△특별전형
입시일 97년 1월 21일 오후12시30분(면접 및 인성검사)

△일반전형
입시일 97년 1월 21일 오전10시(불교교리 및 상식, 면접 및 인성검사)



실천불교승가회 4돌 기념행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통일강연회와 〈한국현대불교운동사〉〈종태스님 추모글 모음집〉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주종하 성타 원행 현각 효림스님을 비롯 원불교 김광복교무 김광수목사 김근태의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지도자련 창립 10주년 기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지난 3일 국제문화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철오 성타스님을 비롯 류진수씨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인성스님(제주도 죽림정사 어린이회)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석근양씨(영주포교당 영산어린이회)가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충북예비역불자련 불서보내기 회향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만호)는 지난 9월19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지난 95년 7월1일부터 1년간 실시해온 불서보내기운동 회향식을 겸한 이날 기념법회에는 혜광(법주사 주지) 이두(관음사 주지)스님을 비롯 김현수 청주시장 정희택 충북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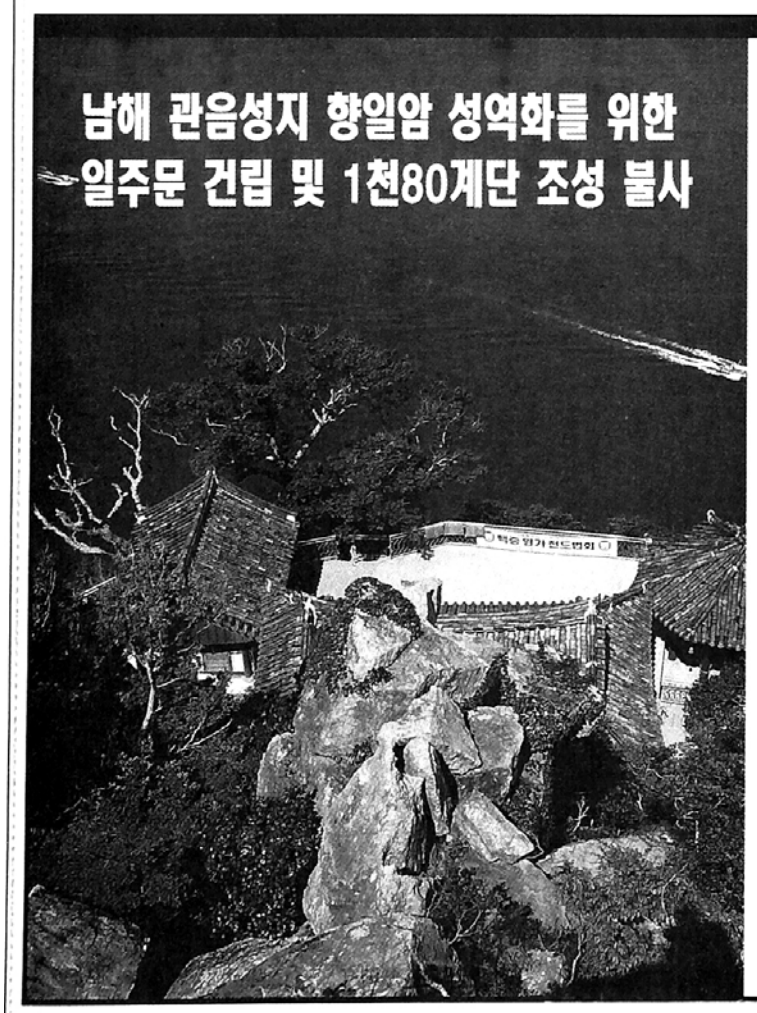


조계종 재가종무원 60여명 수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 수계법회가 지난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재가종무원 60여명이 동참, 오계를 수지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계사로 나선 수계식에서 종무원들은 연비와 함께 수계증을 받았다.



일주문과 1천 80계단 건립을 위한 관음성지 성역화 불사는 불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동참과 10만등불사로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삼가 맑은 차 한잔을 올립니다.
금오산 향일암은 금거북의 중생구제 발원을 간직한 관음진신이 상주하는 남해 제일의 관음기도도량입니다.

왼쪽에는 중생들의 서원에 불보살이 감응했다는 감응도, 앞바다에는 부처님이 머물렀다는 세존도와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이 화현했다는 미타도를 거느리고 있는 관음의 성지입니다.

향일암이 발원하는 불사는 일주문건립과 1천 80계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배자의 세속의 때를 씻어버리는 일주문을 건립하고 계단 하나 하나 오를 때 마다 오욕칠정과 백팔번뇌를 벗어버리는 1천 80계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의 주처로 가는 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사는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정성과 전 불자의 10만등 불사 참여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관음성지란 관세음보살님이 번뇌와 망상에 물든 세상에 몸소 나투시어 중생을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성지를 성역화하는 원력 불사에 여러분의 신심과 정성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사조감도

향일암 오는 길

여수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111번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 공용터미널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임포행(향일암)직행버스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오산 향일암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율림리 산 7번지
전화/(0662)43-4742
전송/(0662)43-2390

10만등불사

성역화 불사를 모두의 정성과 참여로 이루어 내기위해 10만등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1인 1등 : 2만원

일주문 건립불사

한마음을 상징하는 문으로서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전에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사찰의 첫 번째문 입니다.
· 대들보 : 1천만원, · 주춧돌 : 3백만원
· 기 둥 : 5백만원, · 서까래 : 30만원

1천80계단불사

향일암 주차장에서 대웅전까지 약 4백여미터의 가파른 진입로를 확장정비하여 40cm×250cm×20cm 크기의 황등 화강석으로 1천80계단을 쌓아 관음성지 참배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가족설판 : 3백만원 · 계단 1기 : 30만원

1996년 불사입제일
향일암 주지 종 삼 합장

이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들 께는 천일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불사입제 : 1996년 10월 18일 (음 9월 7일) 오전 10시
불사회향 : 1999년 10월 8일 (음 9월 7일) 오전 10시

국민은행 : 553-01-0414-755 예금주 / 향일암 우 체 국 : 503094-0016555 예금주 / 향일암
불사금은 분납이 가능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0662)43-4742로 문의바랍니다.

산문밖의 禪

여성국극인 김경수 씨

"무대에 오르면 배역에 동화"

혼신의 연기 언제나 부처님이 증명 '마음든든'
민족정서 담긴 국극 옛영광 되살리기 안간힘
"신세대도 좋아하도록 창극 현대화 앞장설 터"



"아- 잔혹한 죽음아! 가혹한 죽음아!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공주를 돌려다오. 대의명분을 위해 아내를 죽인 못난 나를 데려가다오. 이처럽 아름다운 모습이 되살아나도록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공주를 돌려다오. 피눈물로 얼룩진 내 슬픈 얼굴을 보아라. 두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아라. 아름답던 사랑은 사라지고 차가운 몸뚱이만 남았구나. 가슴을 쥐어뜯는 나의 고통을 보아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처절한 절규에 누가 아니 눈물을 참을손가. 낙랑공주의 주검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호동왕자의 비통한 절규에 극장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된다. 늠름하면서도 다정다감한 호동왕자로 완벽하게 분한 이가 바로 김경수씨(58·김경수여성국극예술단장)다.

뛰어난 창(唱)과 무용 그리고 연기력을 지닌 여성국악인들이 모여 공연하는 여성국극단. 지금은 그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지만 1950년대, 혹독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폐허속에서 절망과 고난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국극'은 크나큰 위안거리였다.

"당시 국극 스타들은 지금의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씨 등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다고 봐요. 창 뿐 아니라 무용 연기 등을 썩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극인들은 타고 난 끼도 끼지만 연습에도 보통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지요."

매혹적인 저음의 창과 미모, 연기력으로 김씨는 데뷔하자마자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18세때인 지난 54년 당시 전국의 극장가를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여성국극단 '임춘앵과 그 일행'에 단원으로 활동했다. 전설적인 국극인 임춘앵씨는 바로 그의 이모. 판소리 승무 검무 살풀이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경지에 오른 임춘앵씨와 같은 피를 타고 난 까닭일까. '무영탑' '낙화유정' '춘향전' 등의 남자역으로 인기를 얻던 그는 임춘앵씨의 갑작스런 타계로 64년 자신의 이름을 딴 '김경수와 그 일행'을 창단하고 첫작품으로 '왕자 호동'을 올린다.

그러나 이후 영화, TV 등에 밀려 여성국극은 쇠락의 길을 걷고 김경수씨도 결혼을 하고 평범한 아내의 길을 걸으며 한동안 국극의 길을 접는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9월 26~29일 김경수씨는 그의 예술단과 함께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왕자 호동'을 다시 올렸다. 김진진 김을동 이옥천 사명귀씨 등 원로국극인과 함께 김성애씨등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하고 연출 이종훈 음악 이준호 작창 정철호 안무 국수호씨 등 쟁쟁한 인물들과 함께 올린 '왕자 호동'은 왕년의 국극을 본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그는 "변변한 스폰서도 없이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한 것은 이번 공연을 여성국극 부흥의 기회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 말한다.

"50년대 당시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기도 했지만 재주만 믿고 멋모르고 무대에 올랐던 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극이 '우리 민족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전통종합예술'이라는 신념으로 노래 하나 연기 하나에도 혼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국극이야말로 서양문화가 판치는 요즘 창극과 판소리의 맥을 현대인에게 맞게 재구성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미국에 뮤지컬이 있고 중국에 경극이 있고 일본에 다카라즈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성국극'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소재를 옛 설화나 민담 소설 등에서 얻는 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창과 승무 살풀이 등 전통가락과 춤사위가 들어가고 흥겨운 국악리듬에 가사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톤으로 알아듣기 쉬워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금방 극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여성국극. 그러나 우리의 전통예술의 여러 분야가 젊은이들에게 점차 각광받는데 비해 여성국극은 아직도 외면속에 놓여 있다. 서양의 오페라나 뮤지컬만이 진짜 예술인줄 알고 우리 것은 하찮고 속되다는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아 섭섭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도 선배들이 국극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못한 업(業)의 결과로 여기면 반성하는 마음이 앞선다.

남자역만을 도맡아 하는 김씨는 무대에 오르는 일이 무척 즐겁다. 일단 역이 결정되면 법당에 가 삼배를 드린후 부처님을 응시하며 앉아있는다. 말없이 한동안을 앉아있으면 맡은 역의 그림자같은 것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역과 동화되는 자신을 느끼며 은근히 자신감이 솟는다. 마치 부처님이 증명법사라도 되어준 것처럼 무대에 올라도 든든하다.

랩과 마카레나 등 서양것을 더 좋아하는 신세대들을 국극에 관심가지게 할 수는 없을까. 신세대가 관심가져야 여성국극이 활성화 된다고 믿는 그에게 이것은 늘 머릿속을 차지하는 '화두'이다. 그러나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저 자주 접하게 해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명감이 솟는다.

지난 87년 여성국극단 '진경'을 재개해 소규모나마 해마다 공연을 가졌을때 잊지않고 찾아와 준 팬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50년대 어린시절 국극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 기억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김경수씨의 국극 재개공연을 보고 달려온 올드팬들이다.

"예술의 전당 공연때도 연습하는 수개월간 도시락을 싸다주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년넘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 큰힘이 됩니다. 이제는 팬들이기 보다 같이 우리의 전통예술을 발전시키자고 고민하는 동료들이 되었지요." 그들은 김경수씨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줬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의 그이지만 침체해 있는 여성국극을 자기 평생에 제자리에 우뚝 세우고 나아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울려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늘 초조하게 한다. 그럴때마다 〈숫타니파타〉의 다음 경구가 그에게 용기를 준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경숙 기자

'생사를 뛰어넘는다'는 뜻은

문 생과 사를 다 뛰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둘이 아니라는 뜻 같기도 하고 본래는 생멸이 없다는 뜻같기도 한데요. 좋은 예가 있으면 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박우영·경기 고양시 덕양구〉

답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고 합시다. 서울은 시발점이고 부산은 종점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볼 일 보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 온다고 합시다. 그때는 부산이 시발점이고 서울이 종점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시작이고 어디를 끝이라 하겠습니까? 갔으면 오고 오면 또 가고…, 그게 살고 죽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분 일초도 쉬지않고 돌고 돕니다. 그러니 나고 죽는게 다 겉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살다가 나이들어 죽으면 갔다고 하고 태어나면 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야 어찌 나고 죽는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둘이 아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깨달아서 '죽었다 살았다'를 아예 벗어나신 분이지요.

공부하는 이들이 생사관문을 뚫는다 생사를 뛰어넘는다 하는데 그것은 다 찰나에 들고 나는 도리를, 본래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이지 그걸 모르고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음 주인공 수행법이란

문 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을 말씀하십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에 놓고가는 수행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천호균·충북 청주시 봉명동〉

답 원자 속에서 많은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서는 요생각 조생각, 이런 말 저런 말…그냥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한마음은 광활한 우주를 다 싸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전체와 같이 돌아가고 전체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위세계에서 나무는 산소를 주고 인간은 탄산가스를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공생·공용·공식·공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에 놓으면 그대로 일체와 더불어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 나가 없이, 말하자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하면 그것도 벌써 이름해서 주인공이지 대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놓는다, 놓았느냐, 놓을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똥 마려우면 그냥 가서 눌 뿐이지 똥을 눈다, 또는 눠야 하느냐 안눠야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그와같이 그렇게 놓고가는게 수행이요, 수행중에 참단가는 수행이란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고 가는 것이지 딴사람이 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너무 쉬워서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못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잘하려고하고 흥하려고만 하는데 잘못되고 망하기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아하! 주인이 따로 있는 모양이구나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따로 있는게 아니라 심부름꾼, 주인이 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주인공! 했지요.

아무튼 잘하려는 생각, 흥하려는 생각을 한다해도 결과는 내 사량하고 꼭 들어맞지 않으니까 놓고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선입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면 체험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건 되는것대로 감사히 생각하며 놓고 안되는 건 안되는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안되는 것도 내가 한 일이고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사량으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그 까닭을 모르겠으니까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량까지도 다시 놓으라고 합니다.

흔히들 안놓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약한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라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라는 두둑한 배짱으로 몰락 놓고 가십시요.

세상에 믿는다는 말을 할때 무얼 믿는다고 해야 옳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믿을건 자기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6·25때 보니까 사람들이 보따리 챙겨서 도망을 가는데 법당의 불상은 그냥 놓아두고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절하던 불상을 왜 놓아두고 달아납니까? 복을 주시는 부처님이라면 모시고 가야할텐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은 자기를 믿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황급해서 도망갈때 그러듯이 죽어도 나, 살어도 나를 믿고 믿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나를 믿지 누구를 믿느냐고 하신다면 수행도, 고의 해방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도 놓고 착도 놓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가십시요.

나를 보고 늘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는데 내 말은 오늘 물어도 같고 내일 물어도 같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알 림

제 21차 동학동문회 정기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맑은 가을하늘아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동학동문회 제21차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열릴 계획이오니 각 분야에서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문회에 발전이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회 장학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0년 10월 20일 (陰9月10日)
오후 5시(저녁공양전까지)
장 소 : 계룡산 동학사 강설전
연락처 : 동학사 종무소(전화)042-825-2570
(팩스)042-825-6068

특히 각 期대표 스님들은 연락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원들의 연락처를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

창 종 공 고

본 종은 교조 석가모니불의 자각각타의 근본 교지와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묘법연화경과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부처님의 선(禪)·교(敎)·관음정토등 제종의 교의를 통합한 이념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심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불교 정법구현을 실천하여 불국토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불교 정법종을 창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불기 2540년 9월 일

(우) 210-86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691 (구월사)
TEL : 0391-661-4473·4474·4122·4967
FAX : 0391-661-4967

대한불교 정법종 종 정 정의환
총무원장 박준업 합장

"불교의 효는 대승적 愛人사상"

김주곤교수 '한국불교시가에 나타난…' 서 주장

일체중생 내부모 자비실천 강조

"현대사회 병폐 치유위한 근본윤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도여래정례(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如來頂禮). 세존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고 '이것은 나의 여러전 세상의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다'며 정례를 드리는 모습.

"불교의 효사상은 인간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애인사상(愛人思想)이며, 이것은 만민이 일체평등한 불성을 갖고 있다는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인간공경사상이다."

김주곤교수(경산대 대학원장)는 지난 4~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비교한국학회 주최 제5회 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시가에 나타난 효사상' 발표를 통해 자식의 절대적 복종과 의무를 요구하는 유교의 효와는 달리 불교의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뿐 아니라 부모의 성불까지도 추구하는 대승적 의미가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불교가사는 고려말기 〈서왕가〉로부터 출발해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 주로 승려들에 의해 창작돼와 대중교화에 널리 기여해 왔다. 문학사적으로도 가사문학의 원동력이자 사대부가사, 평민가사 등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를 이뤄왔다고 평가된다.

김교수는 이들 불교가사에 정토·인과·연기사상을 바탕으로 한 효사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며 〈한국불교가사전집〉에 실려있는 불교가사 70편을 분석, 불교의 효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교수가 구분한 효는 상대성을 지닌 측면에서의 세효(世孝)와 출세효(出世孝), 단효(單孝)와 광효(廣孝), 동질성을 지닌 측면에서의 사효(事孝)와 이효(理孝), 행효(行孝)와 화효(化孝) 등 여덟가지.

세효가 일반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세간적 효라면 출세효는 부모에게 불법을 수행하게 해 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것. 단효는 지금 당장 부모의 뜻을 받들고 따르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며, 광효는 세세생생 일체 중생에 두루 효행하는 것으로 모두가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들은 불교가사인 '권선곡' '선심가' 등에 잘 나타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육의 은혜에 보은하는 사효와 마음을 밝혀 덕을 닦아 도에 이르는 효인 이효는 〈별회심곡〉에 잘 나타나 있으며, 임금에 충성하고 덕을 참구함으로써 효를 행한다는 행효와 효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되도록 하는 화효는 〈왕생곡〉과 〈전설인과곡〉 등에 묘사돼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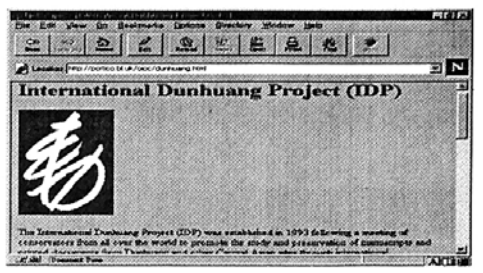
그러나 유교의 효가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를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효는 부모의 자비에 대한 보은과 감사뿐만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성불케 하는 것으로 '출가'가 부모처자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까지 모두 구제한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효행의 한 방편이라는 것. 즉 불교의 효는 단순히 현세적 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내 부모 내 마음 내 몸처럼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사상은 황금만능주의·이기주의·기능주의와 인간 경시사상 및 인간의 폐쇄성 등 현대사회의 인간이 안고 있는 병폐에 대한 방파제인 동시에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덕(佛德)을 예찬하고 불법수행을 권하는 내용으로 내려온 불교가사에서 이처럼 효사상이 깊숙히 배여 있는 것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근본윤리가 효에서 비롯됨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효교육 부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교의 효사상 확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국제돈황 프로젝트

벽화 등 찬란한 돈황유적 볼만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불교유적 돈황의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국제돈황 프로젝트'(이하 'IDP')라 불리우는 이 사이트에는 △IDP 소개 △돈황의 전경 △발굴품 △최근 IDP 뉴스 등이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IDP는 중앙아시아 돈황에서 발굴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동연구를 고양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돈황 국제 학술 단체.

중국 감숙성(서안) 서부의 타클라마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돈황은 4세기경부터 11세기경까지 10개 왕조에 걸쳐 조성된 중국석굴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지. 또한 돈황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실크로드가 타클라마 사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다시 돈황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실크로드로 전파됐던 모든 문화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4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8세기 쓰여진 금강경 등을 비롯해 돈황내의 갖가지 경전과 불상에 대한 설명과 선명한 화보를 볼 수 있다. 또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학서, 남북조시대를 풍자한 벽화, 별자리(星圖) 등의 의학·정치학·천문학과 같이 다양한 고대 문화 유산을 접할 수 있다.

주소는 'http://portico.bl.uk/oioc/dunhuang.html'이다. 〈욱〉

단 신

보문사 영산회상도 등 5점 서울·강원 유형문화재 지정

불교문화재 5점이 최근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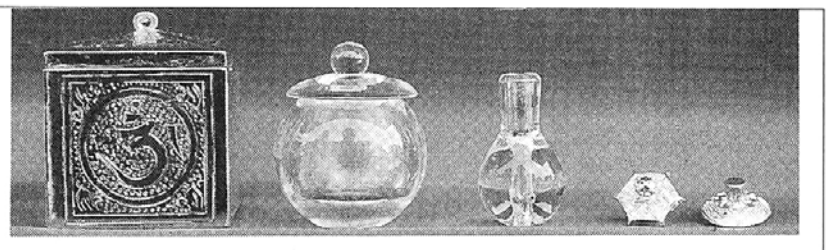
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주지 법준)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중도(神衆圖) 묘승전 지장보살도가 지난달 30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과 3층석탑이 1일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동해 지향사 철불좌상은 지상사 철불좌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문사 문화재 3점은 모두 1867년(고종 4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과 3층석탑은 각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직지' 활자 복원보고서 출간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김광식)은 지난 95년 10월부터 현존 세계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하권에 사용된 약 7천여자의 활자를 복원하고 최근 '〈직지〉 활자복원 보고서'를 펴냈다.





감은사 동탑 부처님 진신사리 재봉안

지난 4월25일 감은사 동3층석탑을 수리 해체하던중 발견된 사리가 재봉안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4일 감은사지에서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을 비롯 종단관계자와 지역기관장, 불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진신사리 재봉안식을 갖고 사리 54과와 사리병 사리기 등을 봉안했다.

이번에 봉안된 성보는 진신사리와 사리외함(청동주물제작 금박·사진 왼쪽), 전각형사리기, 작은 사리병(수정), 사리병뚜껑 받침(순금), 큰사리병(수정), 은제 사리함으로 사리함과 사리기가 문화재관리국의 보존처리후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총무원이 새로운 사리함을 제작, 봉안기와 함께 재봉안했다. 새로 제작된 사리함은 1960년 감은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사리기(보물 366호)를 복원 제작했다.

해외 비구니·여성불자 불교변혁·사회참여 활발

쵸드론스님·마틴여사 출판 인터넷에 호소

최근 들어 출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여성불자의 수행과 권리옹호 그리고 사회참여 등이 다양하게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에서 〈서양에서의 비구니 삶과 수행〉과 〈영적 도반〉 등의 책과 인터넷사이트 '불교에서의 여성운동'(http://www.lancs.ac.uk/staff/milton/women.htm) 등이 주목된다.

"인습억압 벗자" 여성운동 공감대 형성

〈서양에서의 비구니 삶과 수행〉(영국 스노우라이온 刊)의 저자 쵸드론 스님은 서언에서 "동시대 여성불자들은 불교의 변혁에 참여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이 보편적인 선행원칙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걸맞게 인습적인 억압을 벗어던지려는 여성불자를 지켜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라고 조명했다.

그리고 서양불교가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불자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쵸드론 스님의 적극적인 주장에 비해 마틴 여사가 쓴 〈영적 도반〉(영국 토르슨 刊)은 여성불자들의 수행에서의 보편성을 지적하며 불교의 변혁을 기대하는 글.

각국에서 존경받는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된 〈영적 도반〉에서 마틴 여사는 "비구와 비구니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이분법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교의 전통은 신중히 연구돼야 한다. 내가 만났던 모든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은 나름대로의 수행에 충실하게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에서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호소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들 중에는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수지여사,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리여사 등 사회운동가들의 동정과 사진을 등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벳의 비구니스님을 지원해주는 '나르조마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전장에서 사명대사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이진오교수 '밀양지역 문학…' 세미나서 발표

임진왜란시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3천명을 구해 돌아오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승병으로 널리 알려진 사명대사. 10년을 넘게 활약한 전장에서 사명대사가 수행자로서 가진 남모를 고뇌는 무엇이었을까.

이진오교수(부산대 한문과)는 지난 9월 19일 부산대에서 열린 한국문학회 주최 '밀양지역 문학의 전통과 현재' 주제 세미나에서 '임란과 사명대사의 문학' 발표를 통해 승병으로서의 자기희생 속에서도 수행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깊은 고뇌가 사명대사의 문집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곧바로 참전해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성곽을 축조하는 등의 일로 계속 종군했던 사명대사가 정유재란 다음해인 1599년 자신의 심회를 표현한 '기해추봉별변주서(己亥秋奉別邊注書)'라는 시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감정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사명대사는 자신의 종군을 '왕명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명대사의 귀심(歸心)은 이 시를 쓰기 4년전인 1596년 조정에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던 비문과 행장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또 진천지방을 지나면서 지은 시중 '독물 바다에 십년토록 헛되이 먼 변방 자키니'라는 구절에서 '헛되이(空)'의 표현은 승병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자신을 무리를 잃은 외기러기에 비유함으로써 대승적 차원의 구국활동중에서도 수행자 본분에 대한 갈등이 깊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나라와 중생을 구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승병활동 속에서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순수한 수행자 본연의 길을 동시에 걷고자 했기에 결국 후세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선맥의 한 일가를 이루었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우〉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잡지·카탈로그·서적·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비닐포장·수축포장·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苦 여의는 깨달음의 종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㉘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불교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는 포용성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며 세계적 종교로 확대됐다. 사진은 한국의 토속신앙을 포용한 산령각.

"불교는 신화·우주관·다양한 철학의 세계 어떠한 사유체계도 담아서 소화합니다"

사성제·팔정도 등 가르침 이해보다 체득해야 포용 관용성 특징…다른종교는 절대적 신앙요구

〈보르헤스 불교강의〉를 집필한 보르헤스는 그 내용을 압축하여 실제로 대중 앞에서 강연을 가졌다. 다음 글은 그가 1977년 7월6일 조국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콜로세움 극장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진 강연 내용이다.

독자들은 이 글에서 그동안의 연재를 압축·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입니다. 이천오백년전, 네팔의 어느 작은 왕국에서 싯타르타 혹은 고타마라 불리던 한 왕자가 태어나 정각(正覺)을 이루고, 베나레스에서 법륜(法輪)을 굴리기 시작하여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가르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불교사의 세세한 변천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인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에 발생하여 전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 피타고라스, 제논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불교를 서구인들에게 알린 대표적인 인물은 일본의 타이스즈키(鈴木大拙)박사입니다. 석가가 가르친 내용이나 스즈키박사가 현대적인 용어로 소개한 내용이나 그 핵심은 모두 같습니다. 불교는 종파에 따라 신화, 우주론, 마술적 샤마니즘 등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 역시 그 근본은 공통적이며 저는 그 공통적인 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구한 세월을 지탱해 온 불교의 생명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생명력을 역사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작위적이 되기 쉽고 많은 논란거리를 남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번째는 불교의 포용성입니다. 다른 종교의 포용성은 제한적인 반면, 불교의 포용성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늘 그러해 왔습니다.

불교는 결코 쇠와 불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무력(칼)이나 종교재판(화형)으로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불교에 귀의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불교신자는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고, 그외 이슬람교나 유대교 혹은 유교나 도교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도에겐 불교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용성은 불교의 응집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이 관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요가라고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가란 어원적으로 라틴어 유구(yugu)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규율(規律)을 의미합니다. 불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천5백년 전 붓다가 베나레스의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행한 설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 깊이 느끼는 것, 즉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종교라도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붓다가 정각 후 베나레스에서 처음 설법한 내용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붓다가 깨달아 전하고자 하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팔정도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전에, 붓다에 관한 전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禪)불교 신자인 어느 동양인 친구와 오랜 기간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천 오백년 전에 싯타르타 혹은 고타마라 불리던 네팔의 한 태자가 살았고, 출가하여 붓다(이 말은 '깨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긴 꿈을 꾸는 잠에서 깨어난 각자(覺者)라는 뜻입니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왔고, 지금도 믿습니다. '붓다'의 뜻을 말씀드리니, 제임스 조이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란 내가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다"라고 그는 말했지요. 어쨌든 싯타르타 태자는 나이 서른 살에 인생이란 잠에서 깨어나 붓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인 그 동양인 친구와 자주 토론했습니다. "당신은 기원전 5세기에 카필라바스투 지방에서 태어난 싯타르타 태자에 대해 왜 믿지 않습니까?"하고 내가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천진난만한 얼굴로 덧붙이기를, 역사적인 붓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을 공부하는 것과 피타고라스의 전기를 혼동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극동지방의 산사(山寺)에서는 스님들이 참선을 할때 몰두하는 주제(話頭) 중의 하나로 붓다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삼위일체 중의 하나인 성자(聖子)가 지상으로 강림하여 인간의 생을 살면서 유대땅에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필히 믿어야만 합니다. 불교신자는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붓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붓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믿는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에 관한 전설은 너무도 아름다와서 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장 일 남 〈함양대 음대교수〉



석굴암서 열흘 '무욕의 삶' 가치 절감

오페라 '원효대사' '불타는 탑' 등 불교작품 작곡

나는 1969년 봄에 10여일간 석굴암에서 스님들과 살았었다. 스님들의 하루 일과를 흉내 내는 것이었는데 나는 '원효대사'라는 화두를 품고 있었다. 원효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오페라를 작곡하기 위한 석굴암 생활은 매우 진지했었다. 악상을 떠올리고 준비해간 오선보에 열심히 뎃생을 했다. '산사에 가면 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경보스님의 도움을 받아 석굴암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두고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절 생활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예불 시간이었다. 온 우주를 깨우는 도량석 목탁소리를 들으면 나도 새로운 창작열의에 휩싸였고 스님들의 염불가락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생활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서는 순간 음악적 영감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일을 못하게 만드는 법이예요. 그 일에서 어느만큼의 간격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산 속에서는 산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나처럼 함경도가 고향이라던 그 스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마 열흘 동안 절밥만 축내고 하산 했을지 모른다. 내가 절에 와 있다는 것, 작곡을 해야 한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등을 생각하며 조바심쳤던 나의 마음이 그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동해바다처럼 시원하게 열려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절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음악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찾는 곳에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생활이 음악 속에 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예불을 하는 스님들의 염불 곡조도 음악이고 산새들의 지저귐도 음악이고 일출의 장엄도 빗소리도 꽃이 피는 모습도 다 음악이었다. 지금도 큰 절에서 여러 스님들이 봉행하는 예불은 그 자체가 장중한 음악이다. 나는 그것을 작품에 많이 반영했다.

석굴암에서 많은 분량의 곡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만 절생활이 내게 준 더 큰 보람은 살아가는 자세를 배운 것이었다. 오페라 '원효대사'의 작사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김부민씨가 썼는데 그는 "모든 생명이



각하는 음악적 성격과 극적요소까지 피력해 주셔서 나는 스님의 설명에 기준을 두고 오페라를 엮어 낼 수 있었다. 그때 법정스님은 "원효스님은 절에 있지 않고 저자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효이다"란 말씀을 하셨다.

오페라가 완성되고 71년 10월에 첫 공연이 있었다. 김자경 오페라단이 초연을 했는데 이화여대 강당에서 몇달 동안 연습을 했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법고소리 목탁소리를 울리고 염불 곡조를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듯 싶었으나 김옥길 총장이 "예술에 종교적 편협성을 부여하는 것은 안될 말이다"라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는 뒷얘기를 들었었다. 청담스님은 '원효대사'를 관람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주연급 배우들과 나에게 메달을 달아 주셨다. 물론 지금도 그 메달을 간직하고 있으며 메달을 보며 석굴암에서의 날들을 떠올리곤 한다.

88올림픽때 공연한 '불타는 탑'도 매우 불교적인 작품이었다. 여왕을 흠모하는 한 화랑도의 얘기를 통해 사랑의 고결함을 전하는 내용에 석굴암에서 느낀 불교의 대비심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97동계 U대회 성공기원 1만 관등 영산 대법회

일시 : 1996年 12月16日(음 9.5) 수요일 오후 1시~4시
장소 : 전북 무주읍 한풍루(공설운동장옆)

▣ 행사순
제 1부 : 1시 ~ 2시 식전행사(노영회 국악예술단 축하 공연)
제 2부 : 2시 ~ U대회 성공기원 대법회
제 3부 : 3시 ~ 영산재시연(영산작법 보존회시연)
제 4부 : 6시 ~ 점등법회

▣ 관등 동참금 1만원
연락처 0652) 82-1536 85-9700

주최 :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종무원
후원 : 전라북도 U대회 조직위원회 · 전북불교총연합회 · 무주군청

협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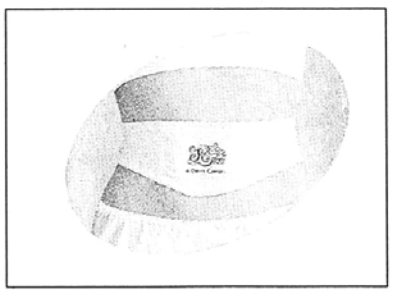
신비의 관광지 마이산 탑사
☎ 0655)33-2900,33-0303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의 기도도량
섬진강 최상류 맑은물의 탑영제 방생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⑯

信心旣具 便要擇定一箇法門來修持
신심기구 변요택정일개법문래수지
切不可祖秦嘗楚
절불가조진모초
不論念佛也好 持呪也好 參禪也好
불론념불야호 지주야호 참선야호
總要認定一門 直到斷去 永不退悔
총요인정일문 맥직간거 영불퇴회
今天不成功 明天一樣幹
금천불성공 명천일양간

믿음이 이렇게 갖춰지면 바로 한가지 법문을 골라 잡아서 수행해 나가야지
아침엔 이것, 저녁엔 저것하는 식으로 변해서는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염불도 좋고 주문도 좋고 참선도 좋다.
그러나 오로지 일문을 정해서 똑바로 매진해야만, 영원히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내일에도 그 모양 그 꼴이리라.

今年不成功 明年一樣幹
금년불성공 명년일양간
今世不成功 來世一樣幹
금세불성공 내세일양간
溈山老人所謂 生生若能不退 佛階決定
위산노인소위 생생약능불퇴 불계결정
可期
가기
有等人打不定主意 今天聽那位善知識
유등인타부정주의 금천청나위선지식
說念佛好
설념불호
又念兩天佛 明天聽某位 善知識說參禪好
우념양천불 명천청모위선지식설참선호
又參兩天禪
우참양천선
東弄弄 西弄弄 一生弄到死
동롱롱 서롱롱 일생롱도사
總弄不出半點
총롱불출반점
名堂豈不冤哉枉也
명당기불원재왕야

한 이틀쯤 염불하다가 내일은 또 어떤 선지식의 참선법을 듣고는 좋아서 또 한 이틀 참선을 한다.
이렇게 동쪽에서 놀다가 서쪽에서 놀다가 일생을 희롱하며 죽음에 이르면
도무지 헛놀음일 뿐 수행은 반푼도 드러나지 않으니
이름만의 당호일뿐 어찌 원통치 않으며 억울하지 않으리오.

用功的法門雖多
용공적법문수다
諸佛祖師 皆以參禪爲無上妙門
제불조사 개이참선위무상묘문
楞嚴會上 佛勅文殊揀選圓通
능엄회상 불칙문수간선원통
以觀音的耳根圓通爲最第一
이관음적이근원통위최제일
我們要反聞聞自性 就是參禪 這裏是禪堂
아문요반문문자성 취시참선 저리시선당
也應該講參禪這一法
야응해강참선저일법

공부하는 법문은 비록 많으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은 다 참선으로써 위없는 묘문을 삼으셨다.
능엄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원통을 선택하도록 하실때

"동쪽·서쪽 오가는 수행은 헛놀음이니 오로지 일문을 정해 똑바로 매진하라"

관음보살의 이 근원통으로써 으뜸을 삼으셨다.
우리는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자성을 보아야 하나니 이것이 참선이요 그 안에 선당이 있다.
그렇듯이 이제 참선법에 대해 설명하리라.

平常日用皆在道中行 那裏不是道場
평상일용개재도중행 나리불시도량
本用不着甚麼禪堂 也不是坐才是禪的
본용불착심마선당 야불시좌재시선적
所謂禪堂 所謂坐禪
소위선당 소위좌선
不過爲我等 末世鈍深慧淺的衆生而說
불과위아등 말세둔심혜천적중생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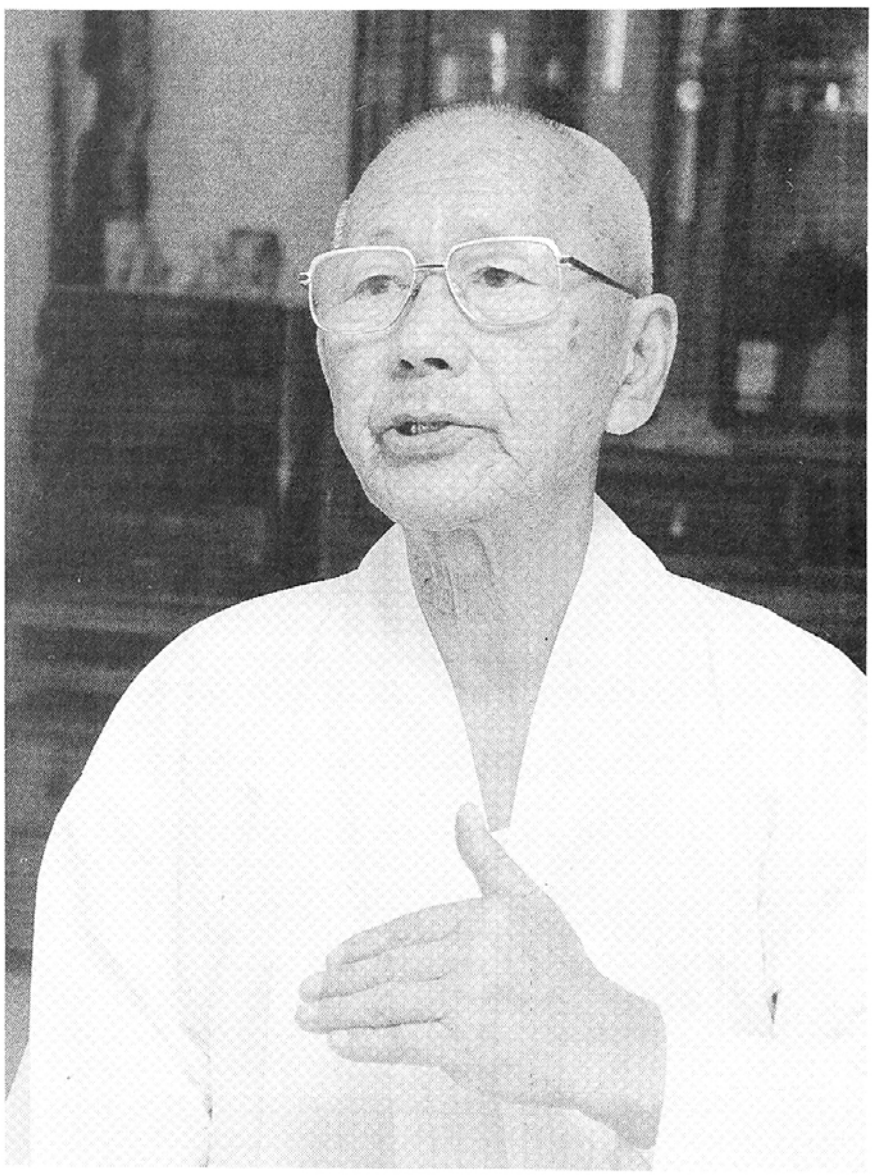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도 가운데서 이뤄지는 행위이니 어느 곳인들 도량이 아니겠는가.
본래는 어떤 선당도 고집할게 아니니 자리틀고 앉아야만 비로소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선당이다 좌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같은 말세의 걸림 많고 지혜 얕은 중생을 위해 베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龍眼

10월은 문화의 달

"부처님 가르침 대로

일 응 스 님 〈지족암 주지〉



약력
- 1920년 전주生
- 34년 완주 대원사에서 박만암스님 은사로 득도
- 38년 봉원사에서 이월하스님에게 범패의식 사사
- 87년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기능 보유자 지정
- 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한국민속예술대전 대통령상등 수상

어느 제약회사가 광고에 '우리것은 좋은 것이여'란 말을 써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우리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없는데 유독 그 말이 유행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며 살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우리 불교의 의식을 배우고 시연하고 가르치며 살아 왔는데 범패 역시 좋다는 것을 다 알지만 좋은만큼 잘 보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늦었으나마 이제부터라도 잘 전승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자들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학을 많이 공부하고 선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법문을 잘 하시지만 범패만으로 살아 온 나는 법문을 잘 못합니다. 아니 나는 법문이나 설법이란 말도 감히 쓰지 않습니다. 그저 신도들에게 얘기 하는 것을 인과설이라고 할 뿐입니다. 인과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처님이 밝혀 놓으신 인과의 도리를 잘 알아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얘기란 의미입니다.

오늘 인과설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주제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

30년전만 해도 우리는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사회규율을 지키고 자연순리 따르는 심덕을 가졌었는데…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자유와 문명, 둘 다 참 좋은 말이고 둘 다 좋은 시대의 살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발전해 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문명시대에 누리는 자유는 이제껏 인간의 역사가 소중히 생각해 온 것에 대한 가치를 뛰어 넘기도 하고 변질시키기도 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란 말에 전적인 찬성을 하며 은근한 향수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발전이란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의 부정적인 모습도 동반한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우리가 문명시대를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좋은 발전이고 무엇이 발전의 나쁜 영향인지를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발전하려고만 하는 욕심에서 우리 스스로 잃어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약 30여년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순종과 거역'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순종의 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사회의 규율에 순종하고 스스로의 운명과 자연에 순종하는 심덕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역의 심성이 강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전통 가치에 대한 거역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가 봅니다. 어른들의 가르침에 거역하려 하고 사회의 규율을 거역하려 하는 심성이 갖은 범죄와 패륜을 낳고 있으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나깨나 자유를 노래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낙담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닌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정신을 좀 차리는 계기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것을 냉정히 생각하고 그걸 바르게 누리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심덕이 누리는 자유는 매우 겸손하고 맛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역의 심성이 추구하는 자유는 맹목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맛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유대로 하는데 누가 말리느냐"는 식의 정신자세가 팽배한 이상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그런 무희망의 방종시대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요 보약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명도 음식이 끊어지고 약을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보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 거든요. 음식을 음식으로 알맞게 쓰고 보약을 보약으로 알맞게 쓰면 그 생명은 건강을 유지하고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 이상의 자유를 억지로 만들어 쓰려고 하면 사회는 반드시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회도 한 인간(생명체)의 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를 모십니다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조성)



<전화주문시 우편배달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진실하고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가정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바라밀포교원장」 효종스님은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기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우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을 위한 장소가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소년회관 건립의 대원력을 세웠습니다.
효종스님은 청소년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모아 자비동자상을 그려 집집마다 동자상 모시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실이나 공부방 벽에 걸린 한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자비심을 가꾸며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한 희망을 갖게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정마다 자비동자 한점씩 모시기 운동에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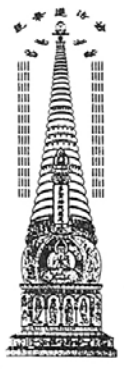
- 자비동자 한점 : 20,000
- 주 최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보 급 처 : 부산지부 (051)633-6412~3 진주지부 (0591)758-6611
  서울 (02) 597-2055~6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괄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반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문화재 지상법석

행하면 우리도 자유인"

"현대인들 출생순간부터 우주의 氣 어머니사랑 느껴야 할 자유 억제당해"

의 생명체라면 내가 속한 사회는 더른 나, 대아(大我)란 말입니다. 내 손에 상처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나눠 갖듯이 우리 사회의 어느곳에 병이 생기면 온 사회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소아(小我)이면 내가 우선 누리고 이루어야 할 자유는 소자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불자들이 갈구하는 해탈성불입니다. 부처님을 대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와진 분이기 때문에 대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자들도 온갖 번뇌와 생로병사의 고통과 육도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공부하고 수행하고 선업도 짓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대자유인이 됩니다. 대자유를 누리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은 우선 소자유를 완성하는데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자유니 대자유니 하는 구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편의상 구별해 봅시다. 소자유는 이 인간의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올바르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벗어 던지지 말고 인륜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 남의 고통을 나눠 가지는 것 이런 일들이 소아의 소자유를 완성시키는 덕목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잘 지키며 인간다운 면모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대자유를 얻게되고 내가 속한 사회 즉 대아도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곳을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니 극락은 우리가 자유라는 보약을 제대로 쓰는 곳에 있는 것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본래진면목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습성을 간편한 것과 자동적인 것에 의존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어찌보면 그것이 인간과 본래진면목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란 생명체가 있는한 그 본래면목은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본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자유를 굴절시키고 그 굴절된 자유를 굴절된지 모르고 추종하다 보니 세상은 험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중의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받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어느 순간의 선덕으로 갑자기 받은 형상이 아닙니다. 무수한 과거생의 선덕들이 쌓이고 쌓여서 받은 귀한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잘 운전해서 다음생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을 잘 운전하는 것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유라는 음식과 보약을 잘 쓰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소아의 소자유를 잘 쓰면 대아의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어쩌면 갓태어난 아기가 수십년을 산 어른보다 더 정확히 알 것입니다. 문제는 아기가 느끼는 사랑뿐이 아닙니다. 우주의 좋은 기운을 어미의 품 속에서 삼칠일을 받아들인 아이와 병원에서 보호 받으며 세상을 만나는 아이와 그 심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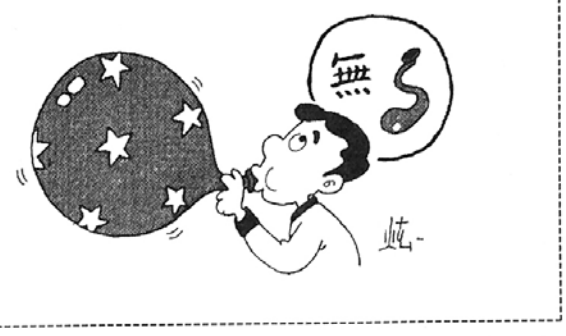
비유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주의 좋은 기운과 어미의 따뜻한 사랑을 온 몸으로 느껴야 할 고귀한 자유를 억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귀한 인연이 출생부터 잘못 길들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의 심덕보다 거역의 심성을 미리부터 배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나는 환경도 매우 전투적이고 적자생존의 각박한 현장의 긴장이 옷을 겹겹이 입어 몸을 가렸는데 요즘은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벗으려고 애를 쓰고 남자들은 넥타이로 목을 바싹 졸라매고 다닙니다. 이것이 문명시대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복뿐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나 거주하는 공간도 모두 문명의 영향으로 인성을 해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를 자유로이 받아들이고 누리지만 그 뒤에서 싹트는 죄업의 씨앗을 걱정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자람 없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년후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들처럼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말로만 한다면 슬픈 일이겠지요. 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아련한 향수조차 없을테니까요. 그 후손들은 우리 것이 좋다는 인식마저 안해도 되게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자유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더이상 굴절된 자유를 먹으며 죄악의 그림자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법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으로 가득 찬 곳이니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다고 아이를 옛날 방식대로 키워야 한다는 억지는 합당치 않겠지요. 우리 사회가 순응의 덕성과 참된 자유로 가득하면 될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주어진 자유를 잘 못 사용하면 죄를 낳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니까 배꼽티라든가 초미니스커트와 같은 것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아가씨들이 늘어나지만 누구하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어서 청소년들의 범죄심리를 자극하고 실제로 어린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스게 소리같지만 옛날엔 여자들의 자유가 방종으로 물들면 후세에는 방종이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생명을 죽이고 거짓 생명을 참생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극락세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음식이 우리들 개인과 우리 사회라는 대아를 고루 살찌우게 하여 마침내 대자유의 나라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열락으로 장엄한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도 한번의 발심이 없으면 캄캄한 밤중의 절벽끝에 선 꼴이니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가득한 영산회상에서도
발심 없으면
밤중 절벽끝에 선 꼴이니
참자유 서원 세우십시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88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㉕

시공간의 탄생

문명발달 순응보다 거역의 심성 강해 방종 초래
온 몸이 함께 아프듯 한곳 병들면 사회전체 고통

150억년전 우주탄생설 물리학자들 '동의'
우주 點서 계속팽창 '시고공중 무색' 증명

경전에서 말하는 색과 공을 물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공을 물리적 진공으로 생각하면 진공중에서 입자-반입자의 쌍이 생겨나고 입자-반입자의 쌍이 소멸되어 진공으로 돌아가니 이 사건만으로도 색과 공은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전은 아예 공 가운데 색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즉 '…시고공중 무색…'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자론이건 상대이론이건 모두 색과 아(我)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我)'에 집착하는 한 아도 있고 색도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비록 집착이 만들어낸 헛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상은 탄생을 갖는다. 전생이 있던 없던 '아'는 시작과 끝을 갖는다. 그렇다면 색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고공중 무색…'이라는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공(空)중에는 색이라 할만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색을 본다면 그렇게 보이는 색은 '아'가 공 가운데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 된다. 물리학적으로 풀이하면 물질과 시공간이 함께 진공중에서 나왔다는 뜻이 된다.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물질과 시공간이 함께 진공중에서 홀연히 출현하였다고 믿는다. 물질과 시공간 모두가 어느 순간 탄생한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 이른바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 관한 대폭발 모형이다.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상대성 이론이 발표된지 몇년 후 프리드만(Friedman)이라는 물리학자가 우주의 모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풀어 답을 얻었더니 우주는 풍선이 팽창하듯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별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으며 거리가 멀수록 비례하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답이 나왔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우주는 결코 안정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정된 우주를 물리학에서는 정상상태(stationary state)의 우주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다.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고 이 일정한 크기 내에서 질서있게 별들이 움직인다고 믿었던 것이다. 상대성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마저도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다.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정상우주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없게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하여 정상우주에 관한 답을 이끌어 낼 정도로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모두 정상우주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론이 맞는다면 이 이론을 거꾸로 생각할 때 우주는 150억년전쯤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우주란 물질 뿐만 아니라 시공간 전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150억년 전 어느 순간 하나의 점(點)으로부터 시공간과 물질이 나타났다는 뜻이 된다. 이 점의 크기는 원자(原子)의 크기를 일억분의 일로 쪼갠 것을 다시 일억분의 일로 세번쯤 쪼갠 것만큼 작은 것이므로 크기가 없는 글자 그대로의 점이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은 없다.

프리드만의 이론이 나온 후 7년쯤 되었을 때 허블(Hubble)이라는 천문학자가 은하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은하계는 실제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례하여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측사실이 있는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주가 한점으로부터 폭발하여 그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있었고 물질이 생겨났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더 많은 관측사실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더 많은 관측사실이 있다. 프리드만의 수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고 나아가 우주가 한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예견될 수 있는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이 앞서 말한대로 대폭발 모형인데 이 모형에는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론과 실험 모두에 걸쳐 우주는 대략 150년전 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탄생하였다는 사실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시고공중 무색…"이므로 진공에서 색이 출현할 수도 있으나 이 색도 결국엔 무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중국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11월 1일 (금)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우학스님 수필집-
저 거 는 맨 날
고 기 묵 고…
이 시 대
베 스 트 셀 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 · 강원 · 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고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 · 사경및 해설 (금강경 · 천수경 · 반야심경 · 법성게 · 화엄경약찬게 · 예불문 · 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 · 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訃 告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광역시 염불선원
祖室 晩悟堂 壽山大和尙 世緣已盡
10月 1日(음 8月 19日)오전 6시
於 念佛禪院入寂 慈以訃告
佛紀 2540年 10月 1日
대한불교조계종 大邱廣域市 무학산 염불선원
문도일동 합장

永訣日時 佛紀 2540年 10月 5日 11時 30分
(음 8月 23日)
永訣場所 大邱廣域市 무학산 염불선원
茶毘場 大邱廣域市 市立 茶毘場(화장장)
晩悟堂 壽山 大和尙 寺院연합회장 장의위원회
住 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578
염불선원
전화(053)782-0120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월의 세월

"苦와 集의 세상 아수라 조선을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월은 무욕도에 건너온 7일뒤 눈을 감았다

인담은 대해 효영에게 수월을 소개하였다. 수월은 그들에게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금의환양입니다" 라고 그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다.

인담이 그런 수월에게 얼굴의 개펄흙을 닦도록 수건을 꺼내주었다. 흙을 닦아내니 비로소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었다.

"건너가세."

인담이 수월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수월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만큼 쇠잔해 있었다. 그동안 병을 앓아도 길 가에 쓰러져 앓았던 것일까. 밤을 구걸하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았던 것일까.

어느덧 대해가 그런 수월을 부축해서 떼배에 태웠다. 비록 해골 행상의 수월이지만 그가 더해지자 떼배가 그만큼의 무게 때문에 물이 훳뜩 사이에서 더 잘박대는 것이었다.

대해가 삿대를 몸 깊이 박아 떼배를 밀어내면서 물 위에 떴다. 그러자 효영도 막대를 열심히 저었다.

그들이 무욕도에 당기까지 인담이나 누구나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수월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큰 공부를 위해서 8도강산을 몸 하나로 떠돌며… 그가 공부하는 길을 걸어 가노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복된 땅이 되리라는 염원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그런 상거지꼴로 병들어 돌아온 것이었다. 인담이 선착장에 당지마자 수월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도 같은 정다움이었다.

"수월수좌가 아는 이는 우녀보살이 계시지… 그밖에는 다 다른 세상에서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네."

"……."

수월은 걸음을 멈추는듯 하더니 멈춰선채 그대로 오줌을 누더기 바지가랭이로 줄줄 흘러내리게 싸고 있었다.

"아기가 되었네 그려" 라고 인담이 너그럽게 말하였다.

"그렇겠지… 도인이란 것이 별것이던가. 아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라도 말 부조를 늘어놓아야 대해나 효영과 같은 신참 처사들에게 무욕도의 법력(法力)을 은연중 짐작하게 할 수 있었던가.

비구니 처소의 우녀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고 수월을 목욕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혔다. 인담이 손수 옛 도반인 수월을 그토록 자상하게 돌보았다.

그가 수월을 이불을 덮어주면서 "푹 쉬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라고 위로하였다.

인담이 그의 거처에 수월을 두고 나와서야 우녀에게 알렸다.

"수월이 돌아왔소."

"올 때가 되어 왔겠지요."

"고생을 많이한 모양이요."

"아무래도 수월수좌께서 이곳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냥…지금 밖으로 나올 수 없겠지요?"

"병든 몸인 것 같습니다."

"나무관세음" 이라고 우녀가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놈의 파도소리! 저놈의 파도소리! 이 소리와 함께 자고 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세월이 이 무욕도의 하루하루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녀의 눈은 마치 굶주린 독수리의 눈처럼 밝아 그런 세월의 어느 급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되돌아다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옳고난 뒤와 같은 잦은 눈이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기억속의 눈이었다.

"올해 수월수좌의 나이가 꼭 서른살입니다."

"그런가."

"그동안 그 스님은 아무런 스승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도… 달마조사도… 다 길가의 말똥구리라고 여겼습니다. 조사나 받들다가 조사의 방귀소리나 듣고 그만이겠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건너오는 길에… 아주 악이라도 차이을 걸 그랬어… 백도 잘 짚어서…" 라고 인담이 말하며 수월의 손목 맥에 그의 엄지손가락 머리를 댔다. 진맥이었다.

맥을 보는 일이라면 인담도 어느만치 악숙한 처지인데 그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 수월의 맥락으로 보아 간장 비장 취장들이 꽉 허약해져 있었다. 허약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숫제 그쪽 부위와 이어진 맥은 놀기를 그만 두고 있었다. 문득 수월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 앞이났으나 겉으로는 태연하였다.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겠지… 어럴래? 족제비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고아줄까" 하고 농담까지 던졌다.

그러나 수월은 그런 농담 따위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가 좀 몸이 회복되자, 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겨우 그런 정도의 농담이나 주고 받는 가에 대한 환멸까지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수월이 바짝 마른 입술을 떠다 놓은 물로 적신 뒤 한두마디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얼굴에는 일체의 웃음이나 밝은 표정 따위가 있어본지 오래인 것 같았다.

하지만 넝마를 걸친 상거지꼴과는 달리 지난날의 무욕도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고(苦)! 이 고라는 것, 괴로움 아픔이라는 것도 여기서 맨입으로 말하는 것은 한번도 얼음이나 눈을 본 적이 없는 남방인이 얼음이나 눈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호랑이를 만나 기절한 후 새가 되어 삼천대천세계 날아다녔습니다"

"집(集)은 또 무슨 개뼉다귀란 말이겠습니까… 멸(滅)은 그름달더러 보름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道)란 캄캄한 오밤중의 도둑놈일 따름입니다."

인담과 우녀가 이런 뜻밖의 말에 머쓱하였다. 그들은 귀를 가다듬었다.

"나는 내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넘어가는 산길에서 두 사람의 떠돌이 가객(歌客)과 함께 가다가 늙은 가객이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나와 젊은 가객은 호랑이의 기운에 눌아 넘어진채 기절하였습니다."

"호랑이를 만나 놀랐군" 이라고 인담이 토를 달았다.

"그 기절이 깨기까지… 나는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곳을 새가 되어 날아다녔습니다."

"……."

이를테면 그런 세계란 〈구사론(俱舍論)〉에서 말하는 바 '철위산(鐵圍山)이 하나의 세계를 에워싸고 있다'라 하거니와 그것은 한 세계를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한 세계를 수직으로 나타내자면 밑은 풍륜(風輪)에서 위는 색계(色界)의 초선(初禪)까지이다. 초선이라면 범천(梵天)의 세계이며 최고의 신인 범천의 세계가 한 세계의 맨 위인 것이다.

그런 맨 위를 벗어나는 세계 밖의 존재가 곧 불보살인데 그 불보살은 거기에 있되 항상 세계 안의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 세계 안에는 축생이나 아귀로서의 귀신도 아우른다.

〈구사론〉은 축생이 사는 곳은 물과 뭍 그리고 공중이지만 그 근본은 저 대양이었다가 뒤에 거기서 뭍과 공중에 옮겨왔다고 말한다.

이런 진술은 2천년 뒤의 주장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들어맞는다.

귀신은 죽은 뒤의 망자(亡者)를 말한다. 그것은 '가버린 사람'이란 뜻인데 그 귀신은 죽은 자일뿐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는 처참한 곳에 있으므로 그 귀를 아귀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아귀는 한 세계의 지역 섬부주 아래 5백유순이 지난 곳에 있다. 망자로서의 그 귀는 덕이 있는 것과 덕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덕 쪽은 숲이나 나무 위에서 지내는 생활을 하고 때때로 지하의 세계를 뛰쳐나와 하늘 속의 궁전에서 노닐 수도 있다.

그런데 덕 없는 쪽은 똥오줌 구덩이에서 살거나 굶주리거나 하는데 그런 아귀는 배는 산덩어리만큼 불러있고 목은 바늘처럼 가늘어져 있다. 그러하니 그 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큰 아가리가 있어도 모자라는데 바늘 하나의 목구멍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으므로 그야말로 아귀인 것이다.

입에서 고름이 나와 개미가 그 고름에 모여들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그런 아귀와 함께 똥이나 더러운 흙탕물을 끊임없이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수월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늘어놓은 나머지 조선 8도강산은 결코 유랑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축생 아귀 등의 중생이 갈 당하는 고(苦)와 집(集)의 세상임을 그의 병든 몸속에 감추어둔 큰 목소리를 꺼내 노여운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구사론〉에는 없는 아수라세계까지도 수월은 말하면서 지금 조선은 위와 아래 그리고 앞과 뒤가 다 아수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런 곳을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바로 수미산 밑에서부터 저 높은 세계로 이어져 있는 범천의 세계인지 어떤지는 가보아야 하겠으나…."

"먼저 가고 뒤에 가는 차이라는 것도 티끌이지" 라고 우녀가 혼잣말을 남겼다.

그렇게 누워있던 수월이 눈을 감은 것은 그가 무욕도에 건너온 7일 뒤의 일이었다. 화장(火葬)이 아니라 수장이었다.



그림 · 조 향 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특히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사찰. 포교원 안내
- 주택가 이면서도 주변녹지 수려한 전원주택
- 대지 38평(재건축시 80여평으로 활용가능)
-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전망
- 전철역에서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70-80명 법회 가능
상담환영 전화 937-6909

이연공고
하기자는 본인과 사제의 연이 다하여 부득이 이연을 공고함.
승욱
백산
묵화
남일
불기 2540년 9월 10일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도현정사 한응. 도현

동불 · 탱화
순금불사 ·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명 : 대 승 사
소재지 :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창건주 : 최 정 희
주민등록번호 060204-2451213
전화 0417-566-6289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6년 10월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구 직
50대 중반의 독신 남자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 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연락처 (0351)41-1152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박성훈 합장

벽지 공장 직영
벽지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사찰벽지 전문
■ 일반벽지
■ 방문작업
문의 · 주문 : 0351-878-2889

가사일 도와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내집처럼 가족같이 지내며 불경을 공부하고 가사일을 돌보실 신심깊은 보살님을 모십니다.
(30-40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연락처 (02)915-5844

기도 · 공부 · 휴양하실 곳
산세수려한 정원과 같은 곳에서 기도, 공부, 휴양하실 분을 모십니다.
■ 현대식 건물로 20여개의 방을 완비하고 식사 제공합니다.
- 세탁 및 목욕시설 완비
- 차량 24시간 대기
- 산책로 보유
연락처 : 0595) 83-2933
※ 문의상담후 가격결정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원B/D (을지로 2가)
문의: 02)266-2629 ,팩스: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하셔도 무방하고 가족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스님께서 약초로 보살펴 드립니다.
정명사 연락처 : 0463-32-2805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 지 : 1400평 (가격 1억6천)
■법 당 : 12평, 요사채 : 20평(방3개)
■사무실 : 12평(방2개), 주차장 : 200평
■가 격 : 1억6천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현존 조경완비, 지방보상 기도도량 가격은 문의후 방문 협의
연락처 0599)33-4802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회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회 등
구로동 원흥사 : 불단, 문짝
불교여대원 : 불단, 문각, 경탁회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한향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회 타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실속파 신세대 사찰 결혼식 선호 추세

"법향가득한 절에서 백년가약 맺고싶어요"

10월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결혼식장들은 벌써부터 러시를 이루고 주말이면 예식장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이다.

'추억에 남을 결혼식을 값싸고 편리하게' 이것은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예비신랑·신부들의 공통된 화두다. 하지만 이같은 화두를 풀기위해 하루종일 전화다이얼을 돌리고 예식장을 둘러봐도 화두 풀기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번화가의 예식장들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고 고급호텔 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창 설렘과 신혼의 꿈, 인생설계로 가득해야 할 금쪽같은 시간들이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과소비로 흐르기 일쑤다.



◇인생 최대의 중대사인 결혼식이 호화·과소비·무질서로 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 알뜰한 결혼식을 위해 사찰혼례를 선호하는 실속파 신세대들이 늘고있다.

◇결혼식장 운영 사찰·단체

사 찰	연 락 처
조 계 사	(02)720-1890
구 룡 사	(02)575-7766
능인선원	(02)577-5800
봉 은 사	(02)517-1331
불교문화센터	(02)719-2606
성 화 사	(053)625-9030
법 왕 사	(053)766-3747
정 수 사	(051)758-6022
전북불교회관	(0652)75-0108

이같은 혼례문화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다 뜻깊게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들이 속속 늘고 있다.

특히 사찰결혼식은 단순한 장소제공 차원을 벗어나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결혼상담소를 병행 적극적인 불자 결혼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전 가족과 일반인들이 여법하게 치를 수 있고 포교신행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묘를 해내고 있다.

비용저렴·시간여유·경건분위기 '장점'
전문식장 9곳 '불자가정 만들기' 일조
지역주민에 무료시설대여…결혼상담소 운영

사찰뿐 아니라 신행단체서 운영하는 결혼상담소에서는 결혼적령기의 남녀의 결혼날선을 비롯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는 무료결혼식도 올려주고 있다.

지난 4월 낙성된 부산 정수사(주지 원광)의 경우 10월 한달동안 7쌍의 결혼식이 예약된 상태이고 이같은 현상은 결혼식장을 갖추고 있는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봉은사 등의 사찰도 마찬가지다. 조계사, 구룡사, 봉은사, 능인선원 등은 결혼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두배가량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사찰에서 꼭 식을 올려야 한다는 불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오래전부터 사찰결혼식은 '불자가정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사찰결혼식은 일부 예비신랑·신부들로부터 외면 당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원이 미혼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4%가 자신의 결혼식을 사찰로 고려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결혼식장을 사찰로 정한 불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사찰이 급변하는 결혼문화에 따라가지 못해 신랑신부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찰에서는 별도의 예식장, 폐백실, 대기실, 식당 등을 비롯 드레스, 예복 대여는 물론 화장 사진 신혼여행까지 처리해주고 있어 적잖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식장에서 드라이 아이스 폭죽 물방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통통튀는 결혼식을 연출해 준다.

특히 사찰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복잡한 도심을 피해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확보 △저렴한 비용 △뜻있는 혼례식 △심각한 주차문제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혜명심씨(조계사 결혼상담소 실장)는 "인생 최대의 중대사로 꼽히는 결혼식을 사찰에서 경건하게 치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다"며 "청신사 청신녀들을 정법과 자비로 이끌때 사찰결혼식은 더욱 빛을 발하고 불자가정만들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사찰예식 앞둔 고명오·김난숙 예비부부



"그동안 쌓아온 신심과 원력을 부처님전에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었습니다. 또 절에서도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혼례를 올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후배법우들이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오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 불교화혼식을 올릴 예비부부 고명오(43·회사원)·김난숙(39)씨.

"부처님전에서 불심·사랑 확인합니다"

고명오씨는 87년부터 대승불자회 회원으로 김난숙씨는 조계사청년회 회원으로 남다른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같은 도량에서 신행활동을 펼쳐온 이들은 현장스님(극단 바람대표)의 주선으로 서로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정암스님(조계사 총무국장)은 혼례날까지 정해줄 정도로 이들의 인연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하는 고씨는 "항상 부처님전에 향을 사르고 삼배할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라며 "처음 만나 조계사 덕왕전에 참배할때 감회는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김씨도 "처음 본 순간부터 바로 이사람이 나의 평생도반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근〉

■불교식 화혼의식 이렇게
하객 축하합장…삼귀의례…칠경화 헌화

절에서 혼례를 치를때는 물론 일반 예식장에서도 스님을 주례로 하고 불교의 화혼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행한다면 이는 곧 부부로 인연맺음과 동시에 진정한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불교에서는 남녀의 결혼을 화혼(華婚)이라고 한다. 사회자가 식의 시작됨을 선언하면서 화혼식은 시작된다. 이어 주례자가 등단하고 화동과 화녀의 인도를 받아 신랑·신부가 차례로 입장한다. 입장이 끝나면 주례법사가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고 향을 사른 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삼귀의를 한다.

이어 주례법사가 그날의 성스러운 경사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을 낭독한다. 고불낭독의 순서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고 절한다.

신랑·신부의 상견례가 끝나면 헌화가 이어진다. 다섯 송이의 꽃과 두 송이의 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먼저 다섯 송이를 주례법사에게 주면 주례는 이것을 받아 불전에 헌화한다. 다음으로 신부가 꽃 두송이를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다시 주례법사에게 준다. 주례는 이 꽃을 불전에 헌화한다. 〈칠경화〉는 부부의 합심으로 구도에 정진함을 의미한다.

이어 예물교환이 있으며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순서를 갖는다. 스님이나 법사를 모시고 주례사를 듣고 축가 축시 등 축하의 시간도 갖는다. 이후 사홍서원을 제창하고 신랑·신부가 주례법사와 내빈께 인사하고 퇴장하면 모든 화혼의식을 마치게 된다.

도움말 : 설산스님〈불교사회봉사회장〉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단호하게
욕망의 흐름을
끊어라



이 향 원



본은 가득,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2大 특별 기획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간 본점 매장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전시기간:**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을 선정하여 현대불교신문 지상에 발표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는 혹 공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오히려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또한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 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 6명을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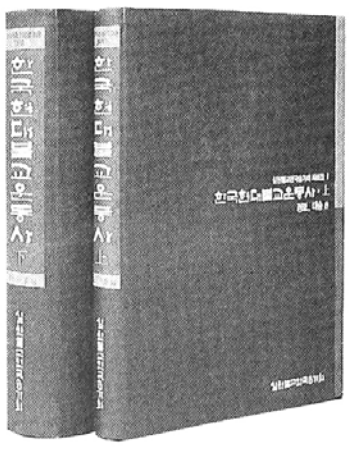
▶ **운영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신문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737-0695
팩스:737-0696

현대 승가운동 발자취 '한눈에'

실천승가회 '한국 현대불교 운동사' 발간

1986년~1992년 활동자료·신문등 정리
6·10항쟁등 현대불교사 연구 기초 마련



1986년 6월5일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이하 정토구현승가회) 창립과 함께 본격화 된 현대 승가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는 지난 1일 정토구현승가회 창립 10주년 및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한국현대불교운동사〉(전 2권·행원 刊) 정토·대승편을 발간했다.

1천5백56쪽이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번 자료집은 그동안 승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토구현승가회'가 '대승불교승가회'와 합쳐 '실천불교전국승가회'로 이름이 바뀌어 오면서도 줄곧 종단개혁과 대 사회 활동, 통일운동 등 세가지 방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온 승가운동의 발자취를 역사적 사료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실천불교운동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소홀히 다뤄 온 현대불교사 정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토구현승가회와 대승승가회의 활동시기인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활동자료와 기관지 모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연대사업 자료는 물론 교계신문 기사도 정리했다. 제1부 활동자료 모음, 제2부 신문자료 모음, 제3부 정토·대승 활동일지, 제4부 〈정토구현〉(창간호~23호) 모음, 제5부 〈대승불교〉(창간호~33호) 모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1986년 정토구현승가회 창립과 9·7 해인사 승려대회 △1987년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불교공동위 결성과 6·10항쟁 △1988년 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와 민족성지 백담사수호 운동 △1989년 승가조직의 토대구축 및 통일운동 △1990년 승가운동의 다양한 모습 △1991년 불교운동의 방향전환 모색 △1992년 승가운동의 단일대오 건설 △승가운동의 변화 발전사 개관 등 8장으로 구성됐다.

최근 발간된 민족사의 〈한국근대불교사연구〉와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 70권), 지난해 출간된 선우도량의 〈신문으로 보는 한국불교 근현대사〉 등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자료집은 80년대 중반이후 최근대의 불교운동사 자료를 빠짐없이 수록, 사료가 부족한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지선스님은 "이번 〈…불교운동사〉 정토·대승편을 시작으로 80년대 초반 사원화 운동, 80년대 후반의 통불협 및 재가불자 운동, 90년대 종단개혁 운동 등의 내용을 차례로 엮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종태스님 추모집 펴내

한편 실천승가회는 실천승가회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故 종태스님(1952~1994)을 추모하는 문집 〈그대 떠나고 빈 자리〉(행원 刊)를 발간, 지난 1일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김재경 기자

서양인이 본 조선 한국관련 외국고서 총망라

'금강산記' 등 188종 자료조사 15년…단행본 최고가 150만원

외국에서 간행된 한국관계 고서들을 집대성한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고서전문점 '호산방' 대표 박대헌씨(43)가 15년여의 노력 끝에 펴낸 〈서양인이 본 조선〉(전2권)은 17세기 중엽부터 1949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전세계 각국에서 나온 한국관계 고서 188종 241관을 망라한 서지학(書誌學)관련서다. 외국에서 간행된 한국관련 희귀도서를 한데 모아 분석·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책값이 국내에서 나온 단행본중 가장 비싼 1백50만원이라는 것도 화제거리다. 1,054쪽의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는 8백여장의 고서사진과 삽화가 실려있으며, 고서에 수록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제를 덧붙였다. 한편 불교관련 서적으로는 4권의 희귀본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 기메박물관 연구원이었던 M.뒤퐁이 1925년 편찬한 〈조선문양집〉은 조선의 고분벽화와 탱화, 불상 등에 새겨진 문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1925년 독일 성 오틸리엔 베네딕토회 총원장 N. 베버가 쓴 〈금강산記〉는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조선의 자연과 불교, 민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보덕굴 유점사 신계사 허금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1932년 북장로회 선교사 Cn. A. 클라크가 쓴 〈한국의 종교〉는 불교 유교 등 한국 종교의 발생과 전래과정 및 사상을 기술한 종교연구서다. △1922년 영국인 J. S. 게일이 영역한 〈구운몽〉은 조선 고대소설 중 〈춘향전〉과 〈심청전〉에 이은 세번째 구미어 번역본이라는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새로나온 책…

▲가려엮은 이함경(허정스님 엮음)=원시경전인 4 〈아함경〉(장아함·중아함·증일아함·잡아함) 중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잡아함경〉 가운데 주로 재가자들을 위한 160가지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 엮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자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잡아함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한다. 〈부다가야 6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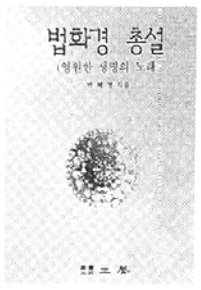
▲재미있는 불교이야기(보각스님 지음)=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에서부터 불교의 꽃인 〈법화경〉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경전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와 인연설화들을 모아 엮은 책. 경전을 좀더 가까이 접하게 하고 나아가 공부의 발심을 내게 한다. 〈여래 5천5백원〉

▲히말라야 기행(김홍성 지음)='떠나는 자에게 길은 아름답다. 방랑은 사색을 낳고 사색은 후회없는 삶의 밑거름이 된다'. 지상에서 가장 순결한 땅, 금세기까지 1000년간 독립된 불교왕국을 이룬 '라다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히말라야 도보 여행기. 히말라야 오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 김홍성 시인은 시를 쓰는 마음과 산에 오르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초당 7천5백원〉

▲마음이나 알고 살아갑시다(임희동 지음)=임희동 변호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감상과 서원을 산문시 형식으로 쓴 에세이집.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위대한 능력' '세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닦을까요'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등 '마음'을 화두로 한 수행담을 산문시 처럼 엮었다. 〈다산미디어 5천원〉

법화경 총설 혜경스님 지음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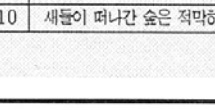


법화불교대학교수인 혜경스님(무설정사 주지)이 쓴 〈법화경 총설〉은 전통 한국불교의 천태사상에 기초한 〈법화경〉 해설서다.

그간 한국불교의 맥을 이은 몇몇 고승들이 반야·법화사상을 조화시켜 〈법화경〉을 치우침 없이 해석해 왔으나 최근에 쏟아진 〈법화경〉 해석서들은 일본의 종파불교인 일연종과 일연정종의 교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법화경 총설〉은 〈법화경〉을 새롭게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불교의 기본사상인 〈반야경〉을 기저로 하여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한편 혜경스님은 책 말미에 고려 천태종의 '법화 참회문'인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를 수록,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소개했다.

〈삼양 8천원〉

천태사상 기초 해설…바른 이해도와



김경호씨 불교동화 '생명의 저울'

"불교설화통해 생명가치 배우자"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주제로 한 불교동화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경호씨(불교전락연구실장)가 엮고 신혜원씨가 그림을 그린 〈생명의 저울〉(푸른나무 刊).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불경 설화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야기만을 모은 점이 특징이다. 또 종교적 차원을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읽도록 불교적인 교리를 다듬어 일반 동화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새끼를 밴 암사슴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슴왕의 희생' △전생에 단 한번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죄로 오백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 목이 끊겨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는 '오백 번 목이 끊긴 양' △수행자가 매에게 쫓기는 까치 한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는 '생명의 저울' △문둥병 여인과 수행자 카사파의 이야기를 다룬 '문둥병 여인의 손가락' 등 모두 14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불교 설화의 교훈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6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8	신도 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9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 화	장경각
10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無



정동수 〈소설가〉

불교라면 허무주의이거나 아니면 허무를 극복하려는 공상적 세계관 내지 비현실적 논리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무지한 나로하여금 불교에 성큼 다가서게 한 것은 〈무(無)〉(김정빈 編·글수레 刊)란 한권의 책이었다. 대행(大行) 스님의 법어집인 이 책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나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한 마음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마음 살림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

스님의 말씀은 평이하고 쉬운 듯하면서도 곱씹게되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더러는 아리송해서 확연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중에서도 가슴에 깊숙히 꽂히는 한마디 말씀은 '대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自由人, 정말 자유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한번 해 봄직하지 아니한가.

"농으면 살고 볼들면 죽는 것이 마음법이다."

"일체를 다 방하(放下)한다는 말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어올린다는 말과도 같다."

책을 다 읽고난 며칠후 나는 내게 책을 권했던 동료를 따라 대행스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스님이 내게 물으셨다.

"무엇하러 왔소?"

"공부를 하려고요"

"무슨 공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데 스님은 옛날이야기같은 설법을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거니와 스님 앞을 물러나는 내게 스님은 지나가는 말처럼 "물흐르듯이 해야 하는 거요. 일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얼른 받아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체 경계를 다 넘겠다는 각오를 했다.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 이제는 내게 못넘을 경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이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울컥 치미는 화를 간신히 참았다. 지내놓고 보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일체 경계를 다 넘었다고 해 놓고는… 나는 스님께 고백하듯 말씀 드렸다.

"기어서 넘은 경계도 넘은 겁니까?"

"경계가 어디 있는데…?"

막연했던 불교관 '명확하게'
실천하는 자유인의 길 제시

순간 나는 불에 덴 듯 전신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면서도 부끄러움만은 아니었고, 희열인듯 하면서도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하, 없는 경계에 내가 여태 속았구나!'

나는 집에 들어와 〈無〉를 다시 펼쳤다. 바로 이것이다 싶었다. 막연하고 아리송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트이면서 밝게 가슴을 비추는 불빛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은 자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행(行)하며 실천할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 해도 그것은 부처님이 배부른 것이지 우리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내가 행하고 내가 겪고 맛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無〉에서의 이 구절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도시사찰 열린문화공간으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회의 '불교와 도시문화' 19일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 스님) 제9차 학술회의가 '불교와 도시문화'를 큰 주제로 오는 19일 법련사 영산대법전에서 열린다. 교계의 비중있는 학술단체인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10주년과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역할을 할 도심포교당의 상징적 존재 법련사 영산대법전 완공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수행의 산간불교와 포교의 도시불교와의 관계정립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도시에서의 포교활성화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발표논문을 요약 발췌한다.

'불교와 도시-인도불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는 "인도불교의 성립은 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부처님 제적 윤리를 제시하고 가르친 종교로 도시의 지지기반이 몰락하자 그 영광도 다하게 되는 떨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경전 등이 무제한 제공된다"고 소개한다. 또한 꽃꽂이 서도 태극권 같은 것들도 신도들에게 지도하며 무료독서실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고 있는 도시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해 포교의 전진기구로 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의 전시회 모습.

일·대만 사찰문화기능 소개 — 법산스님

법산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외국의 도시불교'에서 "일본과 대만의 절들은 도시민들에게 각종 전시회나 교양강좌 등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만내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불교서적이나 법요집, 의 유행(遊行)경로와 수행자들의 안거지, 정사를 세운곳이 주로 도시근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인도에서 농촌촌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바라문교와 달리 불교는 도시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경

인도불교 수행처 도시근처 — 정병조교수

문화자원화 명소로 만들자 — 공종원씨

정법구현 위한 건축 장엄을 — 홍사성씨

홍사성씨(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는 '한국 도시불교의 문제와 방향-현대도시사찰의 건축과 장엄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발표문에서 "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발맞춰 '건물의 수직화 중층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들이 건립되고 있다"며 "현대식 사찰건축은 불교교리나 철학을 이미지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어 내부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씨는 도시사찰이 "한가하고 출입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불자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서관 유치원 공연장과 전시관 찻집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문화공간이 되어야함과 동시에 성역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씨는 또한 "한국의 도시사찰은 모델이 확립된 종지형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진행형이며 아직도 더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도시사찰은 정법구현을 위한 건축과 장엄이 되어야 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도시불교의 문화적 사명'을 발표하는 공종원씨(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도시사찰로 성공한 법련사 구룡사 능인선원 삼보사 정토포교원 등의 예를 들며 "문화활동을 위한 상설공간과 기관을 설치해 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술관 다원 서점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도시사찰의 전형으로 등장한 법련사 영산대법전은 인사동 사간동 견지동 등 전통문화거리를 잇는 중심에 있는 만큼 타 도시사찰의 모델이 되도록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씨는 "도시사찰의 건물이나 성보 성물들 자체가 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성스럽고 아름답게 장엄된 건물자체가 문화를 표상하기도 한다"며 이런 기능을 문화자원화 및 관광자원화한다면 좋은 문화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65〉

보내는 정 두터운 정

扶桑初日上寒空 (부상초일상한공)	찬 허공으로 솟는 부상의 아침해
遠近平原曙色通 (원근평원서색통)	멀고 가까운 평원에 밝은 빛 통하다
路出馬頭山色外 (로출마두산색외)	길은 말 머리 산빛 밖으로 뚫리고
月斜天耳樹陰中 (월사천이수음중)	달은 하늘 귀 나무 그늘 속으로 빗기다
樓臺寂寂無人衆 (루대적적무인중)	누대는 쓸쓸히 모이는 사람 없고
江海茫茫但雪風 (강해망망단설풍)	강 바다는 아득히 눈바람 뿐
到老交情深且篤 (도로교정심차독)	늙으막에 사귀는 정 깊고 도타워
別亭揮涕亦無窮 (별정휘체역무궁)	이별 정자 지는 눈물 끝이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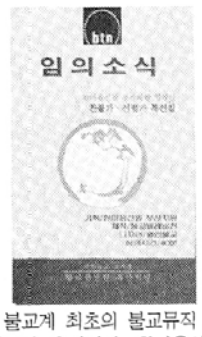
설암선사가 명해(明海)라는 스님을 묘향산으로 보내면서 지은 이별의 시다. 아침이 되어 떠나게되는 당시의 풍경을 여실하게 쓰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어제도 내일도 있을 일이지만, 정다운 이를 보내야 하는 오늘따라 더 새삼스러워진 풍경이다. 더구나 떠나야 하는 거리가 동서남북 어디든 먼 거리로 막힐 것이니, 이곳의 경치로 그곳의 경치를 연상하며 천애만리의 회포를 서로 아쉬워하는 표정이 시어 밖으로 배어나고 있다.

아침해가 솟아 멀고 가까운 평원에 서색(曙色)인 희망의 빛으로 통한다. 길은 어디론가 통해 있겠지만 가지 않는 길은 의미가 없다. 말 머리에 따라서 길은 결정된다. 그러니 길은 말 머리따라 통하는 것이다. 저 산빛 저쪽으로 사라질 말 머리가 바로 길인 셈이다. 너무 빨리 재촉해서 떠나는 길이었나 보다. 달이 아직도 하늘 저 끝에 걸려 있다. 하늘 저쪽에 매달린 달을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의 시선을 묶어 두고 있다. 떠나기가 매우 아쉬운 마음이 여실하다. 길이 말 머리에 뚫렸다든가(路出馬頭) 달이 하늘 귀 밑에 빗겼다(月斜天耳)는 대구(對句)도 묘한 시어의 구사다.

오늘따라 누대는 더 텅빈 것 같다. 적적하게만 느끼는 시어의 표현대로 사람이 모이지 않음이 아니라, 그대가 없기에 사람이 모여도 아무도 없는 듯이 느낀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도 아득한 눈바람만이 싸늘한 것이다.

결구에서 늙음에 다달아 사귐의 정이 더 깊다한 표현도 참으로 인간다운 솔직한 심정에서 자상한 한 할아버지의 참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언어의 감동이란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다. 역시 스님의 자비로운 시어라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교계 최초의 불교뮤직 비디오가 출시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기획 제작한 찬불가특선 뮤직비디오 '임의 소식'에는 '임의 소식(대행스님 작사 김동환곡)' '무상송(대행스님 작사 변규백 곡)' '주인공이 무엇일까(대행스님 작사 유익상 곡)' 등 12여곡의 선법가와 찬불가 그리고 대행스님 법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비디오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불교유적인 쉐다곤탑과 불상들, 태국의 새벽사원·에머럴드사원 등과 국내 통도사 범어사 불국사 등 불교성지를 직접 순례해 그곳의 불교유적을 배경으로 노래를 담았다.

'연등(선진규 작사 김용호 곡)' '우리도 부처님같이(맹석분 작사 이탈철 곡)' '빈손(대행스님 작사 김동환 곡)' 등 널리 알려진 찬불가도 들어있어, 아름다운 불교성지를 거룩한 찬불가와 함께 환상할 수 있게한 점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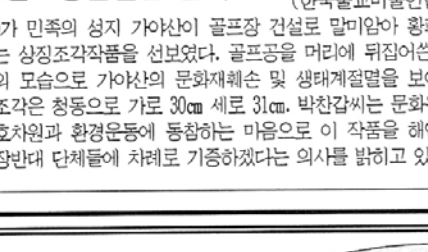
혜도스님은 비디오 제작취지에 대해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하려는 마음으로 합창단원 한사람 한사람의 지극한 마음을 모아 음성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비디오출간을 계기로 찬불가가 널리 대중화되기를 기원했다.

노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어린이 합창단, 지휘 고미년씨.

임의소식

교계 첫 찬불가 비디오 나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무상송' 등 12곡 수록



"골프장건설은 안돼요" 조각가 박찬갑씨(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가 민족의 성지 가야산이 골프장 건설로 말미암아 황폐화되는 상징조각작품을 선보였다. 골프공을 머리에 뒤집어쓴 해골의 모습으로 가야산의 문화재훼손 및 생태계절멸을 보여준 이조각은 청동으로 가로 30㎝ 세로 31㎝. 박찬갑씨는 문화유산보호차원과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해인골프장반대 단체들에 차례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라문화제 알차고 다채롭다

10월 8~10일 경주일원서 열려

원효성사 무애가무행등 40여 행사

찬란했던 신라문화를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벌어지는 제25회 신라문화제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 등이 주관하는 신라문화제는 격년제로 개최돼 신라시대 생활양식과 불교문화를 다양하고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7일 전야제행사로 열리는 화랑·원화 선발대회를 비롯 길놀이 민속경연 예술행사 전시회 학술행사 등 총 40여 행사가 실시된다.

원효스님이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 몸소 보여줬던 무애가무행을 탈춤구조의 연극적 형식으로 재현한 '원효성사무애가무행'도 길놀이(가장행렬)의 일환으로 시연된다.

불국사에서는 8일 신라불교 영산대재가 열리며, 마상무예(8일) 신라검법대회(8일) 연날리기 등은 올해 새로 추가된 종목들이다. 특히 연날리기는 신라가 존속했던 기간을 상징하는 992개의 연을 띄워 장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일 공개행사로 관창무 바라춤 천무 동체싸움 청도차산농악 예천공처농요 등이 개최되며 전국국악대제전 신라미술대전 경축음악회 등도 눈길을 끄는 행사이다.

조계사청년회합창단 12일 정기연주회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 창립18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저녁 7시부터 조계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는 찬불가와 국악, 가곡, 가요 등이 연주되며 사물놀이팀 온세미로, 노찾사 등이 특별출연한다.

10월 문화의 달 불교관련행사 '풍성'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전국에서 총 231개의 문화행사가 벌어진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의 달 주제를 '문화가 미래를 창조합니다'로 정하고 전국적인 문화확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을 '문화복지를 여는 해'로 지정한 문체부는 오는 25일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시범적으로 개원하는 등 문화복지를 위한 각종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 불교관련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근현대희귀자료사진전(4~11일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의 해 기념 문인들의 초상전(8~10일 국립현대미술관) △무형문화재제도보급을 위한 국제정책회의(22~25일 서울 타워호텔) △제5차 문화재연구국제학술회의(25일 민속박물관 대강당) △96 문화재발굴사진전(22~11.5일 경복궁역 지하전시장) △제21회 전승공예대전(22~11.25일 전통공예미술관) △96 종교음악제(29일 국립극장 대극장)

경주소개 인터넷사이트 '붐'

'부처님의 땅…' '웰컴투 경주' '경주유적' 등

인터넷에 경주 남산과 불국사 석굴암 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와 '웰컴 투 경주' '경주 관광' '경주 유적' 등의 사이트가 그것으로 불교성지 경주를 소개하는 좋은 가이드일뿐 아니라 사진과 불교교리, 답사방법 등의 정보도 들어있어 가족과 함께 들러볼수 있는 가족용 사이트로도 적합하다는 평이다.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는 장희석관사(부산고등법원 특별3부)가 만든 것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남산의 역사적 유래와 답사기 학술적인 논문 등 폭넓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석굴암 코너에는 故 최순우 선생의 수필을 비롯해 석굴암과 관련된 논문, 삼국유사의 기록등 각종 자료가 수록돼 있다.

'웰컴 투 경주'는 윤장한씨(대구 매일신문 편집부)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불교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 호텔 교통 등의 관광정보등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공대에서 제작한 '경주 관광'과 동국대가 제작한 '경주 유적'도 인기가 높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원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절수촉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백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백·가슴 군살제거 경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진, 빈뇨, 잔뇨, 소변곤란, 폐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좌대위에 놓고 찜질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상태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장,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혈액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과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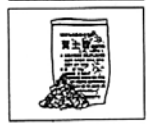
①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불맨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내열탕기: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磁器)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뿔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③ 약쑥: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④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⑤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받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⑥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호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인연마비, 만성두통, 비칠,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보급가격: ₩150,000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 (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 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 의정부: (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52)75-6733
경북지역 경주 : (0561)772-3255 구미·군위 : (0578)83-5308 포항 : (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요정 대원각 사찰로 탈바꿈

김영한보살 1천억상당 법정스님에 시주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로 5월 등기이전

60년 70년대 당시 '밀실정치'의 현장으로 국내 최대요정이었던 성북동 대원각이 사찰로 바뀌게돼 화제가 되고있다.

대원각 소유주 김영한보살(80)은 대원각 건물과 대지 임야 등 7천여평 시가 1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법정스님(맑고향기로운모임 회주)에게 시주한 것. 스님은 지난 5월20일 현문스님(서울 약수사 주지)을 대표자로 '대한불교 조계종 대법사'로 등기이전을 마쳤고, 이후 길상사(吉祥寺)로 명칭을 바꿔 조계종 총무원에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로 등록했다. 이로써 대원각은 현재 대중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97년 5월 공식적으로 사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영한 보살이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하겠다는 원력을 밝힌것은 이미 지난 87년부터. 평소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언론 출판물을 통해 알고 있던 김보살은 당시 절친한 친구이자 독실한 불자인 김대도행보살(69)을 통해 미국 LA 고려사에서 스님을 만나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달라며 무주상 시주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정스님은 평생 주지직을 맡은바 없다며 사양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와 김보살의 순수한 뜻이 여러 차례 전달되면서 9년여만에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

또한 스님은 김보살의 무주상 보시에 감사의 표시로 절이름 그대로 '길상화'라는 법명도 지어주었다.


◇ 김영한씨

대원각은 일제시대 백인기씨의 별장자리였던 것을 55년 김보살이 매입, 고급요정으로 운영됐다. 3공화국 당시 장안 최고의 요정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정계 재계의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출입 '밀실정치'의 온상으로 '요정정치'라는 조어까지 만들어낸 야사도 지닌곳. 8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지역 개발과 함께 요정의 쇄락으로 명망을 잃고 지금은 고급 대중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다.

김보살과 같이 소유주의 불심어린 시주로 요정이 사찰로 바뀐 곳은 서울에서만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에 이어 대원각이 두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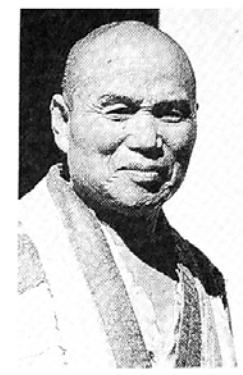

◇국내 최대 요정 대원각이 97년 5월부터 사찰 길상사로 바뀐다.

대원각에 들어설 길상사의 운영에 대해 법정스님은 시주자의 순수한 원력을 살펴 재가 불자들을 위한 정신운동 도량으로 가꾸어나갈 계획과 함께 김보살의 뜻을 기리는 장학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성철스님일대기 영화로"

가제 '인간 성철'…내년 초파일 개봉 목표 제작
박철수감독 "스님의 인간적 체취 담아낼 터"



중견 박철수 감독이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인간 성철'(가제)을 영상에 옮긴다. 영화 '인간 성철'은 지금까지 큰스님으로 추앙받았던 성철스님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담게 된다.

감독 겸 제작을 맡은 박철수 감독은 "이번 '인간성철'은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단순한 전기영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성철스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느껴온 스님의 인간적 면모를 나의 시각에서 그릴 예정"이라며 "때에 따라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철스님을 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301 302' '학생부군신위' 등을 제작한 박철수 필름에서 제작비를 조달, 이달중 해인사에서 제작발표회를 갖고 촬영에 들어갈 '인간성철'은 총 제작비가 3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화개봉은 내년 4월 초파일로 예정돼 있다. 박철수 감독은 지난 81년 불교영화 '니르바나의 종' 연출을 맡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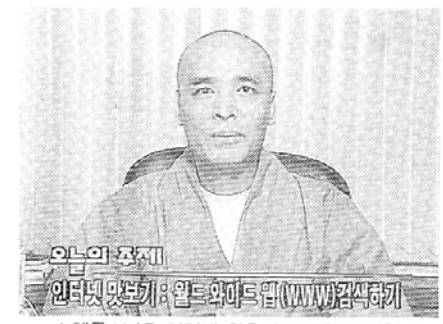
불교방송 가을개편 「명상음악」 신설

불교방송은 지난 7일 가을 맞이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음악프로 1개 신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일부수정, 제목변경, 시간대 이동등 소폭에 그쳤다.

이번 개편으로 '명상음악'이 매주 월요일~일요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까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다. 기존프로그램인 '오후의 가요산책'이 이번 개편으로 '트롯트 한마당(월~일 오후4시10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천수천안'도 '시사매거진(월~토 오후7시25분)'으로 새로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인 '신행365일'이 매일 오전 8시55분으로, '영화음악실'이 매일 새벽 1시, '저녁예불'이 매일 오후 6시, '경전공부(재)'가 매일 밤 10시 5분, 'BBS초대석'이 매일 밤 10시25분, '참선이야기(재)'는 매일 밤 10시 45분으로 시간대를 옮겼다.

이밖에 '가람을 찾아서' '살며 생각하며 1·2부' '꺼지지 않는 등불 1·2부' 등 일부 프로그램이 시간대를 변경했으며, 'BBS스포츠'와 '저녁종합뉴스'가 각 5분씩 방송시간이 연장됐다.



◇혜묵스님은 인터넷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매주 월요일 불자들을 찾아간다.

btn '날마다…' 월요코너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

누구나 쉽게 인터넷 공부

인터넷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안내하는 불교TV '날마다 좋은날'(오전 10시15분~11시5분)의 월요코너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가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새로이 개설된 이 코너는 불교문헌자동화연구소 혜묵스님의 진행으로 불교국가 태국, 인터넷 속의 불교관련 사이트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프로그램 연장의 하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복습과 궁금증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배려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uri.net/~hyemook

대구진각회관 17일 헌공불사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17일 오후3시 대구 대봉동 건들바위 사거리에서 진각문화회관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대구 진각문화회관은 총건평 1천3백50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다목적 불교회관으로 대구불교방송이 입주해 있다.

이에앞서 진각종은 오는 16일 오후2시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33주기 종조열반절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각 해총인을 비롯하여 락혜통리원장등 4원장, 종단간부, 서울지구 스승및 신교도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득도수계산림 태고종 24일부터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 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각 시도 종무원장회의를 열고 전통문화계승 팔관대재 봉행과 합동득도수계산림을 개최키로 했다.

전통 불교문화 계승 팔관대재는 오는 11월 18일 대전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열리며 영산재와 마정수기, 티벳전통불교문화인 참댄스가 시현될 계획이다.

한편 제20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은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순천 선암사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행자등록 소양합격자 3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법종 창종 초대종정 의환스님

〈묘법연화경〉과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대한불교정법종이 최근 창종됐다.

정법종은 강릉시 구월사에 총무원을 마련했으며 초대 종정에는 정의환스님 초대총무원장은 박준업스님이다.

日 벤처업계 대부 스님된다

교세라社 이나모리회장 내년 정년후 출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및 가전제품업체인 일본 교세라社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회장이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고 수도승이 되겠다고 밝혀 화제.

이나모리회장은 최근 "65세가 되는 내년 회장직을 그만두고 사찰에 들어가 자신과 철학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모리 가즈오회장은 지난 59년 파인세라믹소재를 개발 교세라사를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적인 벤처사업의 대부로 자리를 굳혀왔다.

목탁소리

老 전각가의 회향

지난 9월 30일 연세대에서는 조촐한 증정식이 열렸다. 전각가 안광석옹이 평생 제작한 작품 1천여점을 연세대에 기증했고 연대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옹의 전각 판각 서예 인보 등 작품들은 연대박물관 2층에 마련된 '안광석전시관'에서 상설전시되고 내년 5월에는 안광석특별전시회도 개최한다. 80평생을 예술에 정진한 노 대가가 분신처럼 아끼던 작품들을 사회에 회향하는 모습은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보도를 접한 불자들은 마음이 편치않다. 원효 의상스님 벗어등 불교주제인 작품들이 기독교재단인 연세대로 가야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안옹의 자제가 동국대를 나왔고 안옹 스스로 한때 출가했었으며 불교를 주제로 전각을 하고 글씨를 써온 것을 익히 아는 사람들은 별 인연도 없는 연세대보다는 종립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보면 이렇게 된데는 부주의와 무관심이 작용을 하고 있다. 안광석옹도 처음에는 동대에 기증하고 싶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예산도 없는데…' 하면서 별 무반응이었다는 것. 그리고 안옹이 동대박물관에 가 보니 건물이 비좁고 초라해 기증해봤자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주저하던차에 마침 기증의사를 알게된 아는 목사가 간청을 하고 연대박물관장도 여러번 찾아와 간청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봄 중국 탁본전시를 보러 연세대 박물관에 갔을때 박물관의 최첨단 시설과 정성어린 관리를 보고 "이런 곳이라면 제대로 보관 전시하겠구나"하는 안도가 생겨 연대로 결정했다 한다.

평생을 통해 만든 훌륭한 작품, 모은 골동품, 귀중한 유물·책 등을 사회에 회향하려는 안광석옹과 같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관심과 성의가 절대적이다. 주는 떡도 못 찾아먹는 데서야 어디 말이 되는가.

이경숙 기자

불교정보화 걸림돌

불교계 정보화 수준이 타종교에 비해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의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한글검색엔진을 통해 국내에 개설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불교계 정보사업의 취약성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기독교·가톨릭이 각각 15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반면 불교는 9개 웹사이트 뿐이다.

더구나 이들 9개 웹사이트 중에는 개인 2개 대학동아리 1개 행사 1개 등의 웹사이트가 포함돼 있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5개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개 웹사이트 조차 상호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 이들 웹사이트 중에는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불교의 이러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ATM망)를 구축해 '실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는 지난 94년부터 시작됐고 2010년에 이르러 정보시대가 만개(滿開)할 것이다. 현재의 불교계 정보화 수준을 짚어보면, 2010년에 이르러 불교계에 닥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는 공개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특유의 보수성으로 인해 그릇된 정보개념을 갖게됐다. 또한 몰이해와 보수성은 극소수의 불교관련 정보제공자(IP)들로 하여금 영세적이며 고립적인 속성을 띄게했다.

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불교계의 이러한 현안이 선결되지 않는한 21세기 불교정보화시대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오종욱 기자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 역	주 소	전 화	팩 스
부 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 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 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 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 주	제주시 이동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 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 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 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41-3	0361)241-0633	
영 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9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 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 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 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 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 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이 시대 포청천 이인제 경기도 지사님!
부처님의 가피력이 영원하소서

28년 전에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경기도가 보상의무자인 하천공사로 전재산인 농토가 하천이 되어 버렸지만 소송은 커녕 차비 한 푼 없는 처지로 지난 28년간 계속하여 내용증명으로 경기도에 정당한 보상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토지소유주였던 어머니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또다시 보상을 신청했으나, 이 시점까지 보상에 관한 합의는 커녕 단 한번의 성실한 보상협의조차 없었기에 본 토지의 보상이 국가의 채무로는 성립조차 되지 못했음에도, 보상의무자인 경기도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국가채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위법하게 전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저희 아홉 남매는 너무도 억울하여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차례로 분신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살보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자애로운 영산 대선사의 인도로 이인제 경기도 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법률지식으로 지사님은 이같은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며, 법 규정대로 정당한 보상이 경기도에 의하여 직접 이행될 수 있게 산하 공무원을 독려함으로써 지난 28년간 어머님의 억울함 해소는 물론 저희 아홉 남매의 생명까지도 구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식화된 법 규정이 아무리 엄존해도 지난 28년 간 전임자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누적된 위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책임져야할 자신의 의무라는 결정보다는 위법하지만 단 한마디 스스로도 납득못할 엉뚱한 주장만으로도 가능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거의 모든 공직자의 일반적 태도임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의 이같은 정법행 태도는 이 시대 공직자의 사표요, 둘도 없을 지도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매한 인품과 바른 지도력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서원합니다.

신현주 신현숙 신현자 신현옥 신현순
신현경 신현철 신현애 신현석 합장

현불뉴스

기초선원령 확정

승려 기본교육기관의 하나인 기초선원이 올 동안거부터 시행된다.

조계종 기초선원운영위원회(의원장 무여)는 지난 1일 총무원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기초선원령을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기초선원령에 따르면 수업기한은 4년, 초급(1,2안거) 중급(3,4안거) 상급(5,6안거) 연수과정(7,8안거)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봄·가을 해제기간중 산철살림을 살아야 한다. 운영위는 기초선원을 금년 동안거부터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해인사에 이어 범어사 동화사 마곡사 축서사 기기암 등 5개 기초선원 지정을 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대중불교 전국 결사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박윤흔)는 12~13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7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중불교운동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전국 불교지도자 1백여명이 참석, 강의와 분과토론으로 진행된다.

총림설치법 '종헌위배'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벽파)는 지난 2일 제8차 회의에서 총림설치법이 종헌에 위배된다고 판결, 조만간 총림법이 개정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규위는 지난 9월3일 현봉 종광 명진스님이 청구한 '총림설치법 종헌위배 심판청구건'을 받아들여 이같이 심판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격인 법규위의 판결에 따라 총림설치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종회 또는 집행부가 총림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11월 정기종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가회 조직 확대키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지난 1,2일 양일간 근본도량인 보광사에서 제3차 수련회를 갖고, 종교인협의회의 적극 참여를 통한 승가회 전국조직망을 구축키로 했다.

13일 생명나눔 천도재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수덕사에서 생명나눔 회원과 기증자가족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번 천도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기증자들의 뜻을 기린다.

광주·전남 청소년 포교 '새 장'

불자교사모임, 27일 무각사서 1500여명에 첫 수계

불교세가 취약한 광주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청소년수계법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전남여상고)은 오는 27일 무각사 잔디밭에서 제1회 광주·전남 청소년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을 계사로 지역내 학교 및 사찰학생회 약 1천5백여명의 청소년불자들이 오계를 받게 될 이번 수계법회는 불교포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지역에서 청소년포교를 위한 대규모 수계법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립된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은 그동안 지역내 70여곳에 이르는 중고등학교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한다는 원력을 세워 당시 5개학교에 불과했던 불교학생회를 지금까지 13개의 학생회를 창립시킬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뿐만아니라 불자교사모임은 정기법회, 수련대회, 사찰순례 등의 신행활동을 비롯 십대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편지 '아힘사'와 교사들에게 띄우는 '무등불'등을 매월 발간, 청소년 및 교사포교를 위해서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수계법회를 준비해온 김진택회장은 "청소년포교는 현직 교사들이 나설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아직도 몇몇 불자교사들은 청소년포교와 불교학생회 설립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회를 계기로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수해사찰 "가을 수확"

지난 7월26~28일 집중호의로 가건물 법당 침수, 축대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배수로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환)가 수해의 아픔을 딛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봉영사 대중들은 지난 1일 유실된 배수로 옆 1백여평 고구마밭에서 10여 박스의 고구마를 캐며 지난 여름 수해의 아픔을 수확의 기쁨과 맞바꾸었다. 〈남양주=고영배 기자〉

동국대, LA 로얄한의대·병원 인수

9월 23일 조인식 동양학연구소 설치…불교학등 교류 확대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지난달 23일 미국 LA소재 로얄한의대 강당에서 로얄한의과대학(총장 김대영)과 50병상규모의 부속한방병원을 합병 인수하여 '동국-로얄한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의 분교를 설립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교의 총장은 △한의학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체해부실, 한의학자료 전시실, 도서관의 신설 및 확충 △불교학과 동양철학과 한국학과등의 교류확대방안 모색 △학교 기숙사 설립 △우수교수 및 의료진 확보 △동양학연구소 설치 △교수 학생교환 및 각종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국 및 미국에서의 한의학 면허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달 19일 구성된 인수기획단을 중심으로 연내로 타당성조사 및 구체적인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관련 송석구총장은 "교육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국대의 LA진출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국내의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로얄한의과대학은 1979년 세신한의과대학으로 설립된 4년제 대학교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강의되고 있다.

용성문도회 해인사 사태 수습 나서

3일, 7직사임 권고

최근 해인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 용성문도회(회장 성오)가 화합과 수습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용성문도회는 지난 3일 서울 대각사에서 문도회를 열고 문도회 중진을 주축으로 용성문도회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의, 해인총림 산중수습대책위와 대화를 통해 해인사의 화합과 사태를 수습키로 했다.

이날 도문 종하 중원스님을 비롯 용성문도 40여명은 "용성문도회 문장 혜암스님을 여법히 모시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해인사 7직의 사임을 권고"토록 했다.

이에앞서 해인사 기획실장 무착스님은 문도들에게 "혜암문장과 문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참회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해인총림산중중진회의와 산중수습대책위원회는 9월26일 성명서를 통해 "금번의 해인사 사태는 방장스님의 위덕을 빌미로 몇몇 승려들의 전횡으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고 "원융살림을 회복하기 위해 주지 이하 7직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사진 좌)는 9월23일 미국 로얄한의과대학(총장 김대영)과 부속 한방병원을 합병 인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증심사 온천개발 저지 '결의'

광주사암련등 54개단체 "생태계 훼손 막자"

광주불교사암련과 53개 사회단체가 광주의 영산 무등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영조스님)를 결성하고 증심사지구 운림온천 개발 저지에 발벗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일 광주신협연합 회의장에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가운데 광주지역 각계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가든 백화점 계열사인 (주)청정농원이 추진중인 무등산 증심사지구 대규모호텔건설과 쇼핑센터 운림온천개발계획은 무등산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원효사 증심사의 사찰환경과 광주천 건천화와 영산강오염의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무등산지역 개발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또한 범시민대책위는 무등산살리기 대책으로 △운림온천계획안 정보공개 요구 △1천원모금 시민운동 △무등산 증심사입구에서 전국환경대회 개최 △운림온천 공청회 지속적 개최 △행정소송 심판청구 등 법률적 대응 △광주지역 사회인사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실버타운 보리수마을 18일 개원

3년만에 완공…360세대중 1백여세대 입주

고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종합복지 레저타운인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수마을이 오는 18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지난 93년 3월17일 공사를 시작, 3년만에 완공된 보리수마을은 총 부지면적 2만2천여평에 연 건축면적 6천여평의 규모로, 숙소동 5개를 비롯해 법당 강의실 세탁건조실 온천사우나 과일채소재배단지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숙소동은 15평 규모의 총 360세대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100여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보리수마을 대표 시현스님은 "국내 처음으로 생활불교가 함께하는 보리수마을은 실버산업의 선구자적 모델"이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허탈감을 천수관음의 손길로 메울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생입주형과 휴양입주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리수마을은 1인당 평생입주형은 8천5백만원(2인 1억1천5백만원), 휴양입주형은 2천만원에 각각 분양하고 있다. (02)3443-9381

진관스님 보안법위반혐의 구속

인권단체 대응책 모색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로 불교인권운동, 장기수 송환운동 등 인권활동을 벌여오던 진관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지난 1일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형사들 20여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됐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관스님은 친북인물로 이미 구속된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북경시내 모호텔에서 북한에서 온 김모 이모씨로부터 미화 4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진관스님은 지난 2일 윤기원변호사를 통해 불교인권위 활동보고서와 한국통신 노조간부 7명의 인적사항 전달과 미화 4천달러를 받았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에서 문체위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사찰문화재도난과 관련 문화재정책,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 등을 질의하는등 정부행정의 철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의 불교관련 질의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國監 불교관련 내용

"해인사·봉은사 보존대책 강구하라"

5년간 도난문화재 89건 4천181점

질의 ▲박종웅의원(신한국당): 합천 해인사, 서울 봉은사, 부산 범어사등 역사 문화적가치를 보유한 전통사찰들이 개발이라는 명분앞에 무력하게 노출되어있다. '보존'과 '개발'을 최대한 조화시켜나갈 법적체계가 필요하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강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재승의원(국민회의): 95년 보물제1043호 송광사 16국사진영 13점을 비롯 최근 5년간 89건 4천1백81점이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문화재회수를 위한 대책과 문화재관련 전과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미착공 골프장의 허가를 전면취소하라.

문체부 자료 ▲남북간 종교계 교류: 8월말현재 남북간종교계의 교류신청건수는 31건으로 지난해 61건에 비해 절반가량.

▲종교계 해외 선·포교사 파송: 지난해 1월 현재 국내 불교계 7개 단체가 15개국에 1백4명의 포교사를 보냈다. 또한 개신교가 1백50개국 3천7백88명을 보냈으며 천주교는 18개단체에서 26개국에 1백60명, 원불교가 10개국에 54명의 포교사를 보냈다.

▲경주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 지난 7월9일 불국사가 청와대에 청원한 황룡사와 감은사복원은 정확한 설계자료가 전해오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추정설계로 복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또한 불교계가 재원을 자체조달한다고 밝혔으나 방대한 재원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보수중인 불교문화재: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해체보수, 법주사 팔상전보수, 태안 마애삼존불 석불보수, 화순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수, 해인사 대장경판보수등 50건.

▲97년 보수예정 불교문화재: 서울 원각사비각건립, 경주 석굴암 석굴공조시설개선, 해인사 장경판고보수등 28건.

▲해인골프장건설 반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 주인공도 이름이지만

오직 주인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도 이름이 지만 가만 있으면 부처요 공이며, 한생각 냈다하면 법이요 법신이며, 움직였다 하면 응신화신이요 색인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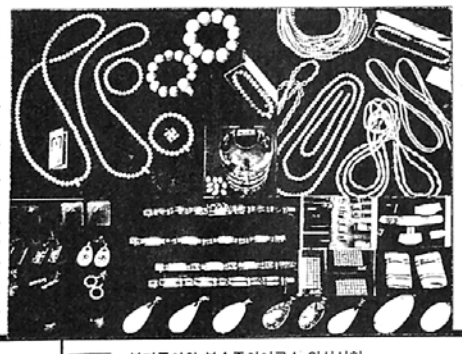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8%, 심장질환자 92.6%, 류동업병 91.8%,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옥석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압지 84%, 오로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히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관단능력을 넘어선 힘,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못 믿을 수 없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름보일러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 찰 부 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田) 평수 : 108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파워침 종합셋트> 300,000원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땡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파워-침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 6944(대)

건강백세 ㉔

허리

허리는 척추가운데 요추(腰椎)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전방으로는 대소장과 자궁이나 방광등 비뇨생식기관이 들어있어 상당한 중량이 되어 이들을 지탱하는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있다. 단순한 물리적인 기둥역할 외에도 비뇨생식기의 기능이 실상은 허리에서 온다고 봐야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하초(下焦) 신(腎)기능이 모두 허리에서 연원된다고 볼수있다. 허리가 튼튼해야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력이 강해야 활발한 생식기능력을 갖는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주로 서서 생활하는 사람은 허리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불량 요통·척추기형 원인

영양 균형 섭취·체중조절 필수



허리병 즉 요통은 척추성(脊椎性), 요근성(腰筋性), 연관장기(聯關臟器) 질환에 의한 합병증 등 몇가지로 원인을 구분할수 있다.

척추성은 결핵, 매독등으로 인한 척추결손, 척추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저축(디스크성 요통) 퇴행성변화나 외부충격 타박으로 인한 척추손상, 만곡 등 척추기형이 원인이 될수있으며 요근성은 요근이 과로나 타박 충격등으로 무리가 되거나 근육염을 일으켜서 발생하며 신장 수뇨관 요로 방광 등 비뇨기에 염증이나 결석 종양이 발생했거나 대소장등의 염증 종양 난소 자궁 고환 요도 전립선 등 남녀생식기 계의 염증 종양이 생겨 발생되는 것이다.

그외에 긴장 강박성으로 오는 신경성이나 과도한 성생활등 질병외적 원인 등 다양하다.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그 원인질환이 해소 되면 요통도 해소 되지만 습관이나 자세불량등으로 인한 경우는 고쳐지기도 힘들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가 많다. 바로앉는 자세 좋은 독서자세 등은 요통의 예방과 학습능력의 향상에 직결된다.

또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때 힘을 내려면 근육에 혈액이 몰려야한다. 갑자기 강한 힘을 쓰거나 타박이나 충격을 받아 근육에 혈액이 뭉쳐 정상순환으로 회복되지 않을때 어혈증(瘀血症)이라고 부르는 근육통을 일으킨다. 요근의 근육통은 통증만이 아니라 요축추부를 바로서게하는 인대역할에 장애를 주어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만곡증등을 일으킨다. 작업이나 운동전후에 가벼운 운동을 통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것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침대나 의자의 선택 심지어 구두의 올바른 착용까지도 요통의 예방에 한몫을 한다. 중년을 넘어가면 근육은 탄력을 잃어가고 골격은 노쇠해져 골다공증등 퇴행성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적절한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유지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적당한 체중유지등은 모든질환 특히 요통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평소의 체력단련 그중 요근부의 강화는 요통예방의 지름길이다.

한의학에서는 소양인체질의 경우 육미지황탕 제재를 장복하면 하체강화에 도움이되어 선천적으로 약한 요부를 강화해주고 탈모를 막아주는 특효방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觀音鳥가 되리라 ③·〈끝〉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나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궁암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미치지 않고 컴퓨터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종양이 생긴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수술을 하면 된다니까 수술을 하도록하자. 괜한 고집 부리다가 더 고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족들은 수술을 완했지만 나는 싫었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절로 들어 갈 때 나는 '관세음 보살님이 의사인데 누구에게 수술을 맡긴단 말인가'란 믿음만 굳게 지니고 있었다.

"마음이 짓고 마음이 고치는게 병이야.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과 자네의 마음을 따르는 것 가운데 어느게 현명한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겠지. 아무쪼록 큰 마음을 내어 병마를 이겨 봐."

그간의 얘기를 다 들으신 스님은 낙산사의 홍련암을 찾아가라고 하셨다. 해수관음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는 병을 얻어 이렇게 당신께 의지하러 왔습니다. 부디 자비의 손길로 내 병마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한도 없이 홍련암에 머물며 기도를 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다. 서울의 식구들은 걱정을 했지만 내가 아무런 고통없이 기도만 하며 지내는데 놀라와 하기도 했다.

홍련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기 때문에 철야기도를 했다. 철썩대는 겨울파도 소리를 들으며 관음정근을 하고 절을 하다보면 어느새 일출의 장엄한 의식이 펼쳐지곤 했다. 일출은 날마다 새로웠다. 새 희망이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저마다 봄날의 매서움을 앞세우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 갈 수록 밤이 깊어 갈 수록 바다바람은 날카로와졌다. 그러나 그만큼 나의 기도는 일심으로 모이지고 있었다. 굳은 믿음이 있느니만큼 나는 물러서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백일을 넘겼고 해가 바뀌고 다시 반백일이 넘어선 어느날 눈발이 흩날리고 하늘이 무겁게 내려 앉아 있던 그날이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약속을 한듯 홍련암을 고즈넉함 속에 얼어 붙게 했다. 관광객도 별로 없었다.

그 저 바다에선 파도만이 철썩거리는 가운데 밤이 찾아 왔다. 그날도 나는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 관음정근을 하며 절을 하는 가운데 밤은 깊어갔고 귓가에 들리던 바람소리 파도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늘 그랬다. 기도에 몰입하면 누가 들어왔다 나가도 모르기 일쑤였다. 그 새벽에 나는 꿈 아닌 꿈을 꾸었다. 해인사 응진전에서처럼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꿈 아닌 꿈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옷도 머리도 새하얀 할머니였다.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지극히 나를 부르느냐'고 하더니 내가 아무런

"이제 안아플테니 자비행을 하도록…"
검사결과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발원했다 '관음조가 되리라'

대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걸 다 안다는 듯한 자비로운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온몸을 조용조용 주물러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찌면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이제 안 아플꺼야.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행하도록 해라."

"아니, 그럼 할머니는 관세음보살님이신가요?"

그 순간 눈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혼자 법당에 앉아 있음을 알았다. 몸이 한없이 가벼웠다. 열흘을 더 홍련암에 머물며 기도를 하고 서울에 돌아와 병원에 갔다. 의사는 전번의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암이 없어졌다는 검사결과 앞에서 나는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관음조가 되리라'고 발원을 했다.

실 상 행
〈서울 동작구 상도동〉

♦ In what has the world originated? - so said the Yakkha Hemavat - with what is the world intimate? by what is the world afflicted, after having grasped at what?

인간은 어떻게 생성되며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또 인간은 어떤 것을 집착하게 되고 무엇으로 인해 괴로워합니까? 설산야차가 물었다.

♦ In six the world has originated, O Hemavata - so said Bhagavat - with six it is intimate by six the world is afflicted, after having grasped at six.

설산야차여! 인간은 여섯가지 것으로 인해 생성되고,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사랑을 하게된다. 또 그 여섯가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성인이 말했다.

♦ Hemavata said: What is the grasping by which the world is afflicted? Asked about salvation, tell (me) how one is released from pain?'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㊼

설산야차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저에게 구제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 Bhagavat said: Five pleasure of sense are said to be in the world, with (the pleasures of) the mind as the sixth; having divested oneself of desire for these, one is thus released from pain.

성인이 말했다. 인간에게는 다섯가지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을 떨쳐버려야 고통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섯번째로써 의지가 있다.

*world (n) 세계, 인류(인간)
*originate (v) 생기다, 시작되다 (~in)
*intimate (v) 친하다, 사랑하다 (be ~ with)
*afflict (v) (정신적 · 육체적으로) 괴롭히다
*grasp (v) 움켜잡다, 집착하다
*release (v) 놓아주다, 석방하다 (~from)
*mind (n) 의지, 마음생각, 마음
*divest (v) 벗다, 떨쳐버리다 (~oneself of)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연 꽃 ②

아나뚤리 김 作

어머니의 잠자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던 로효프는 어제의 쓰라린 밤을 떠올렸다. 어젯밤 어머니는 잠깐동안 눈을 떴으나 그를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오른지 연꽃만 바라보며 불가해할 만큼 신경을 거기에 집중했었다. 로효프는 또한 그가 모르는 사이에 잠든 다음 아침에 스쳐지나가듯 꾼 꿈의 몇토막도 떠 올렸다. 그것은 아마 저 미래의 먼 겨울에 관한 꿈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일본에서 사게될 아름다운 모피옷과 할간 암여우의 기이한 죽음에 관한 꿈이었던것 같았다.

로효프는 어머니에게 마실 것을 좀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먹을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로효프는 곧 설탕물을 만들어서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라붙은 입술 사이의 어두운 틈새로 그 액체를 한 숟가락씩 흘려 넣어주고 그 결과를 지켜 보았다. 점차로 설탕물은 입에 가득차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그걸 삼키지 않았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중요한 습관이 그녀에게는 벌써 상실되고 말았음이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그 물들을 다 토해내고 말았다.

죽어가는 어머니의 붉어진 얼굴과 딱지진 입술이 고통스러운 갈증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더 이상은 물을 한모금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로효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로효프는 가난으로 얼룩진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 보았다. 스케치북을 꺼내 소리없이 집안의 초췌한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다녀갔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는 어찌한 일도 하지 못했다. 저녁에 다시 돌아 온 간호사는 어머니의 수의와 깨끗한 잠옷을 준비해 왔다. 로효프는 그녀와 어머니의 옷을 갈아 입혔다. 로효프는 어머니의 육신에서 다시한번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그날 밤은 눈이 내렸고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간호사는 어머니의 임종이 다가오는 시간과는 상관 없는 사람인양 로효프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로효프는 그다지 흥미 없는 그림을 그렸고 눈은 계속 내렸다.

그날 밤은 열병같고 폭풍같은 흥분 속에서 지나갔다. 그것은 자제의 포기였고 한밤의 어습프레한 근심이었다. 밤은 자신의 커다란 상실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제 설국의 새날이 시작되었다. 새날은 빛에 가득했다. 해변가에는 검은 바다가 누워 마치 딴 세계에 사는 것처럼 꿈꾸며 얼을 포기리에 뒤덮인 얼굴을 한물결 한물결 부드럽게 선보이고 있었다. 그 얼굴을 그날 밤 하얀 폭풍설과 검은 바다의 격렬한 포옹에 의해 태어났다. 로효프는 그밤이 유난히 길다는 생각의 끝에서 아침을 맞은 것이다.

폭풍설과 바다의 격렬한 포옹이 만든
설국의 새날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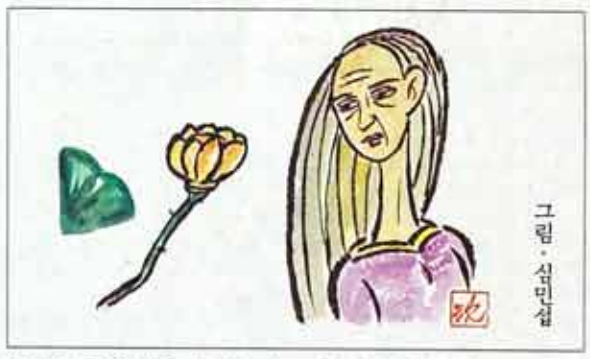


그림 · 심민섭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종부도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1 불교TV 개국특집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산림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종찰(佛寶宗刹) 통도사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가지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2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영상포엠 내원사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이 실려진 카메라렌즈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3 불기2539년 신년영상메이
산중편지
속세의 멀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풍도(風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네분 스님의 심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4 불기2540년 결제철특집
적멸보궁을 찾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정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5 불교TV 개국특집
산사의 향음 · 만등만화공양법회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고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심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속법공양의식 주제방송을 극화한 것이다.

VHS · 5개 1SET/ 소비자가:110,000원 (VAT포함)

btn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02)3272-0781~5/706-3502~5